

2026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진출 환경
시장 분석
진출전략



Contents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04
2. 정치(정책) 환경	08
가. 정부 현황	08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10
3. 주요 이슈 Pick	21
가. 말레이시아의 재정건전성 제고 정책	21
나. 디지털·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신규 수요	22
다. 인력·노무 환경 변화와 외국인 노동 규제 강화	23
라. 부미푸트라, 할랄 등 제도 장벽의 강화 추세	24
마. 통상다변화 정책으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25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8
가. 시장 특징	28
나. 무역	32
다. 산업	40
라. 투자	44
2. 유망 산업	53
가. 반도체 및 전기전자	53
나. 할랄·소비재	56
다. 에너지·플랜트	61
라. 디지털 인프라·AI산업	64
3. 협력 기회	66
가. 통상·G2G	66
나. 프로젝트	70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74
2. 진출전략	76
첨부 1. 수출 유망 품목(상품)	88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91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93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94

I . 진출 환경

- | | |
|---------------|----|
| 1. 경제 환경 | 04 |
| 2. 정치(정책) 환경 | 08 |
| 3. 주요 이슈 Pick | 21 |

I 진출 환경



1. 경제 환경

□ (경제전망) '26년 경제성장률은 '25년 대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성장률) 세계은행은 '26년 말레이시아의 경제성장률을 4.1%로 전망
 - 대외적으로는 미·중 갈등 및 관세 리스크로 수출 둔화가 예상되는 반면,
 - 내수·투자 모멘텀은 일정 부분 완충 역할을 할 전망
- (인플레이션) '26년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약 2.2%~2.3%로 예상
 - 말련 중앙은행(BNM)은 '26년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국내 수요 압력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2.2%~2.3% 수준으로 점차 좁은 범위에서 안정될 가능성 언급

□ (호재 요인) 정부 주도의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 및 안정적인 노동시장 지속

- AI·데이터센터 등 첨단·디지털 분야 FDI 확대 및 에너지전환 가속화
 -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기업의 직접투자와 첨단산업 생태계 강화
- 국내 일자리와 임금수준 인상을 통한 내수 안정화
 - 특히 전기·전자, 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 고용 확대는 중산층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내수 소비 안정성 강화 요인으로 작용

□ (부진 요인) 높은 대외의존도에 의한 불확실성 및 물가상승 압박

- 세계교역질서 재편에 따른 무역 불확실성 증대
 -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관세) 등 외부 리스크 증가에 따른 수출 중심 경제 타격
 - * 자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글로벌기업 리쇼어링 촉발
- 보조금 합리화 정책, 판매·서비스세(Sales & Service Tax, SST) 인상에 따른 단기적 물가 상승 압력과 소비 위축
 - 휘발유·전기요금 보조금 합리화 → 가계부담 증가
 - 판매·서비스세(SST)율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 물가 인상 압력
 - * 중앙은행(BNM)에 따르면 보조금 합리화 전면 시행 시 '26년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1%p 추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정치·제도 리스크 및 구조 개혁 필요성 증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
 - IMF 및 말련 중앙은행(BNM)은 경제 구조개혁 및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 → 세재 확대, 구조조정 등 기업 부담 증가 유발

□ 주요 경제지표

주요지표	단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f)	2026년(f)
인구	백만 명	32.5	32.5	32.6	32.7	33.1	33.5	33.8	34.2
명목 GDP	십억 달러	365.2	337.4	373.7	407.6	339.7	419.6	445	475.1
1인당 명목 GDP	달러	11,228	10,400	11,474	12,483	12,091	12,541	13,145	13,879
실질성장률	%	4.4	-5.5	3.3	8.9	3.6	5.1	4.1	4.1
실업률	%	3.3	4.5	4.6	3.9	3.2	3.2	3.2	3.2
소비자물가상승률	%	0.7	-1.1	2.5	3.4	2.5	1.8	2.4	2.2
재정수지(GDP 대비)	%	-2.0	-4.9	-6.0	-5.5	-5.0	-4.1	-3.8	-3.4
총 수출	백만 달러	235,320	171,315	299,034	352,439	312,678	330,305	173,708	N/A
(對韓 수출)	백만 달러	8,474.0	8,155	8,230	9,085	9,760	13,981	7,563	N/A
총 수입	백만 달러	218,110	205,089	189,570	238,216	266,661	300,252	161,137	N/A
(對韓 수입)	백만 달러	9,739	9,373	10,765	12,080	15,237	10,443	5,864	N/A
무역수지	백만 달러	29,520	22,583	60,912	58,129	47,069	30,053	10,586	N/A
경상수지	백만 달러	12,774	14,058	14,524	13,002	6,184	7,132	7310	8,444
환율(연평균)	현지국/US\$	4.03	4.14	4.14	4.4	4.5	4.5	4.4	N/A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8.1	31.6	46.8	171.4	84.7	73.9	N/A	N/A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62.3	24.2	121.7	142.8	66.1	112.6	N/A	N/A

자료: 국제통화기금(IMF), 말레이시아 중앙은행(BNM),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세계은행(WB), UNCTAD, 한국무역협회

□ 현지 경제 상황

- (경제성장률) '25에 이어 '26년 4%~5%대의 완만한 성장 예상
 - (세계은행) '25년 실질 GDP 성장률을 4.1%, '26년을 4.1%로 전망
 - (BNM) 말련중앙은행은 '25년 성장률을 4.0~4.8%, '26년을 4.0~4.5%로 전망
 - 고용 개선, 소득 증가, 글로벌 업황 개선에 따른 견조한 내수와 민간투자 지속이 주요 성장동력(2026년 예산안)
- (소비) '25년 소비는 가계소득 증가, 고용 안정, 인플레이션 완화 등에 힘입어 견조하나, 생활비 상승 및 비필수품 지출 축소로 소비 패턴의 조정 흐름
 - (민간소비) '25년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약 +5% 성장
 - 최저임금·공공부문 급여 인상, 고용률 회복 등이 가계소비를 견인(Invest Malaysia)
 - (소매판매성장률) 말련소매업협회, '25년 연간 3.1%에서 2.7%로 하향 조정
 - 비 필수재에 대한 수요 하락 및 물가 상승으로 가계 지출 하방 압력의 영향
 - '25년 하반기 전기요금·판매 및 서비스세 인상, 인건비 인상 효과 분격화되어 지속적 하방 압력 예상 (Business Today)
- (민간투자) '24년 두 자릿수 회복 이후 '25~'26년에는 승인 투자 집행 본격화와 인프라 프로젝트 진행으로 중단기 성장세 전망
 - '24년 인가 투자는 사상 최고로 '25~'26년 집행 파이프라인이 두터울 전망
 - 서비스(데이터센터·디지털), 제조(전기·전자/반도체),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구성
 - 국내투자(DI) 55%, 해외투자(FI) 45%로 국내투자가 과반을 차지,
 - * '24년 인가 투자는 약 880억 달러(3,785억 링깃), +14.9% y/y,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 (잠재위협) 보조금 합리화 및 재정 긴축에 따른 내수 둔화, 대외 통상환경 불확실성 리스크로 인한 프로젝트 집행 지연 가능성도 존재
 - 그럼에도 말련 정부는 투자·수출 개선이 GDP 성장의 핵심 동력이라 언급
- (산업생산) '24년 제조업은 글로벌 IT 업황 회복과 전기·전자 수출 반등에 힘입어 성장 전환, '25~'26년에도 견조한 확장세가 이어질 전망
 - (제조업중심) '24년 GDP 내 제조업 비중은 약 24%, 반도체 중심의 전기·전자 분야를 필두로 석유화학·에너지전환 분야가 견인
 - * 전기·전자 수출이 전체 수출의 약 40% 차지
 - (고부가가치전환) 제조업 고도화를 위한 신산업마스터플랜(NIMP2030), 국가반도체전략(NSS)을 통해 첨단 패키징·스마트팩토리 보급 확대 추진

- (대외교역) 개방형 무역구조로 '24년 말련의 교역의존도는 GDP 대비 약 135%
 - '25~'26년에는 미·중 경쟁, 美 보편관세 적용, 글로벌 전기·전자사이클 회복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 전망
 - (수출입 규모) '24년 총 수출은 3,303억 달러, 총 수입은 3,003억 달러로 무역흑자 300억 달러 기록
 - '25년 상반기에도 수출 1,737억 달러, 수입 1,611억 달러로 126억 달러 흑자 실현
 - (품목별) 전자집적회로(HS 8542)가 최대교역품목으로 '24년 수출 770억 달러, 수입 545억 달러 달성
 - * 전체 수출의 23%, 수입의 18% 차지
 - (대상국) 주요 수출 대상은 싱가포르(505억 달러), 미국(437억 달러), 중국(411억 달러) 순이며, 한국은 118억 달러로 9위 수준
- (투자유입) '24년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약 112억 6,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증가하며, '25년 상반기에도 견조한 흐름 지속
 - (주요 투자국) 싱가포르, 미국, 중국, 일본 등이 상위권을 차지하며 특히 미국계 반도체·디지털분야, 중국계 IC 설계·첨단 패키징 분야 진출 확대
 - * 산업별로는 제조업(전기·전자), 서비스업(데이터센터·디지털 서비스), 에너지(CCUS 등)
 - (전망) '25~'26년 글로벌 공급망 재편(China +1), 디지털 인프라 수요 확산, ASEAN 디지털 허브 전략 등에 따라 FDI 유입 기대
 - 다만 미·중 지정학적 리스크와 미국의 반도체 관세 가능성은 잠재적 위협

2. 정치(정책) 환경

가. 정부 현황

□ 희망연합(Gabungan Harapan, PH) 주도 연립정부 출범('22년 11월 총선 이후)

- (현황) 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총리의 소속 정당인 희망연합(PH)을 중심으로 다수 정당 참여 연립 정부 구성



참고 : 말레이시아 의회 구성

- 말련은 영국식 의원내각제를 채택해 하원이 핵심 입법 활동을 담당하며 총리 선출 권한 보유
 - 상원은 총 70명으로 구성되며 주로 자문과 심의 기능 담당, 임기 3년
 - 하원은 총 222명으로 구성, 각 소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하며 임기 5년, 예산안은 하원이 단독심의
 - '22년 11월 총선 이후 연합정부는 총 153석으로 다수 의석 확보
 - 연합정부는 다문화주의와 반도 및 동말레이시아를 골고루 지지하는 정당들로 구성
 - 의석 배분은 희망연합 81석, 국민전선 30석, 사라왁 당연합 23석, 사바연합 6석, 기타 독립 및 소정당 13석으로 구성
 - 한편 야당은 주로 반도 말레이계를 지지하며 종교적 성향이 강한 정당으로 구성되며 범말레이시아이슬람당(PAS), 말레이시아 통일민주연합(MUDA) 등이 68석 확보
-
- 국회 의석 분포상 안정적인 다수 의석 확보로 법안 통과 기반 마련
 - 다만, 정당 간 이해관계 차이와 주 정부(사라왁·사바)의 자치권 요구 등 정책 집행 과정은 신중히 조율하는 정국
- (최근이슈) 전반적으로 국정운영은 안정적이나 하원 의석수 확대 추진 및 민생정책의 사회적 반발 가능성 상존
 - (하원의석수) '25년 9월 안와르 총리가 동말레이시아(사바·사라왁주)의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 공표 (+8석), '93년 이후 32년만의 하원 의석수 증대
 - 법적 검토 진행 중으로 전체 의석수 230석 이상 예상
 - 향후 동말레이시아의 자치권 증가와 현 연립정부의 정치 지형 재편 가능성 예상
 - (민생정책) 보조금 축소, 세제 개편 등 민생정책에 대한 불만 제기
 - * 디젤 보조금 축소('24년 6월 시행), 판매 및 서비스세(SST) 인상('24.3., 6% → 8%), 전기요금 개편 등
 - ** 인니, 네팔 등 인근국에서 발발한 민심 불안과 대규모 시위 또한 영향을 줄 수 있음

□ (정책방향성) 대내적으로 MADANI 국정 철학 하에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대외적으로 균형 외교를 표방하며 무역·투자 다변화 기조

- (대내) 포용적 성장과 사회적 안정, 친환경 개발을 추구하는 경제 및 정책 프레임워크인 MADANI 국정 철학 지속('23년 발표)
 - * MADANI : 지속가능성, 연대와 배려, 존중, 혁신, 번영, 신뢰 등의 6가지 가치를 반영한 말레이어 약어
 - (성장전략) ①국민 생활 수준 제고, ② 재정 건전성 강화, ③고부가 제조업 강화, ④디지털·에너지 전환 4가지가 큰 축
 - (생활수준제고) 사회적약자 대상 금융 지원, 도로 및 인프라 개선 등
 - (재정 건전성) 선별적 보조금 지급 및 세제 개편으로 재정 건전성 회복 추진
 - (고부가제조업) 중장기 국가개발계획(말레이시아 계획, 13MP)나 산업개발계획(신산업마스터플랜, NIMP2030) 등과 정책 연속성 확보
 - (디지털전환) 공공행정분야의 AI도입 등 디지털화 및 데이터센터·AI·5G 등 첨단디지털 산업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 기대
 - (에너지전환) '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ETR) 이행 가속화며 재생에너지 수소·CCUS 등 신성장동력 육성
- (대외) 균형외교를 기본으로 하며 최근 들어 투자·무역 다변화 확대 노력
 - (미국) 반도체 등 주력 산업 분야의 핵심 교역국으로 첨단산업에서 미국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한 경제협력 기반 강화
 - * '25년 10월 ASEAN 정상회의를 계기로 美 트럼프 대통령이 말련에 방문하며 상호무역협정(Agreement on Reciprocal Trade)을 체결
 - * 상호관세율 19% 유지, 1,711개 품목 관세 면제, 규제조치 완화, 공급망 안정화 협력 등 포함
 - (중국) 최대 교역국 지위 유지, 일대일로 프로젝트 및 제조업 투자 유치 지속
 - * '25년 4월 시진핑주석 말련 방문 계기로 향후 30년 간 고위급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선언
 - * AI, 디지털경제, 서비스, 철도, 미디어 등 MOU 30여 건 체결하며 경제협력 강화
 - (BRICS) '25년 1월 BRICS 파트너 국가(Partner Country)로 공식 지정되며 협력 강화
 - '25년 7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BRICS 정상회의에 안와르 총리 참석
 - (ASEAN) '25년 ASEAN 의장국 역할 수행을 통해 역내 리더십과 외교적 위상 제고 추진
 - * 말련 정부는 국제무대에서 ASEAN의 중요성과 글로벌 사우스 내 역할 확대 희망
 - (그외) EU와 FTA 협상 재개('25년 1월), GCC와 FTA 협상 개시('25년 5월), EFTA 4개국(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도 협상 타결('25년 6월)
 - (EU) '12년 양측 산림별채, 노동권 등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 상이해 말련 측의 요구로 협상 중단 후 '25년 1월 협상 재개 발표
 - (GCC) '25년 5월 FTA 협상 개시 공동 성명에 서명 후 1차 협상일 조율 중('25년 11월 초 기준)
 - (EFTA) '12년 11월 협상 시작되어 '17~'20년 잠정 중단, '25년 6월 노르웨이에서 개최된 EFTA 장관급 회의에서 경제동반자협정(MEEPA) 체결

나. 주요 정책 및 규제 현황

□ 2026 말레이시아 예산안

- (개요) 말련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예산안으로 현 정권 하 4번째 예산안

2026 말레이시아 예산안 주요 경제목표 요약

구분	단위	2024년	2025년	2026년
GDP성장률	%	5.1	4.0~4.8	4.0~4.5
인플레이션율	%	1.3	1.3	1.3~2.0
실업률	%	3.2	3.0	-
재정수입	억 달러	748	790	798
	억 링깃	3,220	3,400	3,431
재정수입 증가율(전년 대비)	%	10.5	5.6	0.9
재정지출	억 달러	948	979	1,092
	억 링깃	4,075	4,210	4,700
재정지출 증가율(전년 대비)	%	5.0	3.3	11.6
재정적자비율	%	4.1	3.8	3.5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	64.6	64	65

주: 2023-2026년 예산안 종합하여 정리,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및 인플레이션율은 잡정 및 목표치

자료: 말레이시아 재무부,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종합

- (요약) 수출 및 글로벌공급망 재편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
 - '26년 재정수입 약 798억 달러(3,431억 링깃), 재정지출 1,092억 달러(4700억 링깃)로 편성
 - '26년 재정적자 비율은 전년 대비 완화된 3.5% 목표
 - MADANI 프레임워크 하에 ①행정 효율화, ②성장 역량 확대, ③사회안전망 강화를 큰 축으로 세부 예산 편성
 - 단, 일각에서는 세제 개편의 효과가 미미하고 美관세와 미·중 경쟁으로 대외경제가 불안정해 '26년 경기 성장을 목표치 대비 하락 우려
- (특징) 만성적인 세수 부족으로 '24년부터 이어진 보조금 효율화 정책은 지속 확대되는 한편, 부미푸트라 지원 예산과 지역균형발전 예산 확대
 - (보조금효율화) '24년 디젤보조금 개편 → '25년 판매 및 서비스세(SST), 전기세, 휘발유 보조금 개편 → '26년 전기·디젤·휘발유 보조금 지급대상 개편, 가금류 및 달걀 보조금 폐지 등
 - (부미푸트라지원) 공무원 주거 지원(약 5.2억 달러), 기업인 금융 지원(약 6억 달러), 교육훈련제도 지원(약 1.3억 달러) 등 현금성·현물성 보조금 및 금융 지원 확대

- (지역균형발전) 동말레이시아(사바·사라왁주)를 중심으로 인프라 프로젝트와 도농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교육비 등 지원 확대
- (탄소세도입) '26년 중으로 탄소세가 도입될 예정이나 세부 시행 방안 미정
 - * 탄소세는 국가 탄소시장 정책(National Carbon Market Policy)과 기후변화법안(National Climate Change Bill)에 따라 추후 확정 예정

□ (개발정책)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 2026~2030)

- (개요) '25년 발표된 국가 5개년 개발계획으로, 국가의 경제·사회·산업 발전 방향, 재정 배분, 투자 우선순위를 규정하는 최상위 중기 국가 로드맵
- (비전) MADANI 정신을 이어 말련을 고소득·포용적·지속가능 국가로 탈바꿈
 - 발전의 재설계(Redesigning Development)를 모토로 3대 핵심 지향점 제시

※ 13MP 3대 핵심 지향점

- (고소득 및 지속가능한 국가) 디지털,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가속화
- (삶의 질 향상 및 포용적 사회 구현) 생활비 완화, 통합적이고 공정한 사회 조성
- (지속가능한 환경 및 거버넌스 강화) 재정 건전성 등 공공서비스 효율성 제고

- (정책 방향) 경제 복잡성 제고, 사회 이동성 강화, 공공 부문 개혁 가속화, 복지·환경 지속가능성 향상의 4대 전략을 27개 이행과제로 구체화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 MP) 4대 전략 축 및 세부 이행과제

4대 전략 축	세부 이행과제
경제 복잡성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고부가가치산업 및 전략 핵심 분야 육성 2. 녹색경제 강화 3. 청색경제 역량 제고 4. 식량안보 강화 5. 연구·개발·상용화·혁신 생태계 고도화 6. 국가 생산성 및 경쟁력 제고 7. 홍수 저감 및 기후 적응 역량 강화 8.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접근성 개선 9. 중소·중견기업 성장 촉진 10. 제3섹터 역량 강화
사회 이동성 강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1. 교육 개혁 12. 노동시장 개혁 13. 다차원적 포용 발전 전략 강화 14. 취약계층사회·경제 수준 향상 15. 지역 간 균형 발전 및 농촌개발 강화

4대 전략 축	세부 이행과제
공공 부문 개혁 가속화	16. 공공서비스 제공 체계 개선 17. GovTech 기반 디지털 정부 혁신 추진 18. 투명하고 책임 있는 거버넌스 체계 강화 19. 사업 및 재정 관리 시스템 개혁 20. 사회경제 생태계 강화 및 제3섹터 활성화 기반 조성
복지·환경 지속가능성 향상	21. 국가 정체성 함양 및 국민통합 22. 고령사회 대응 역량 제고 23. 보건의료 체계 개혁 24. 주거정책 개혁 25. 안보 및 국방 역량 강화 26. 환경 보전 및 지구 건강 보호 27. 재난 대응 및 관리 체계 강화

자료: 말레이시아 총리실, 주말 대한민국 대사관,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 (예산규모) 13MP의 총 투자 규모는 약 1,420억 달러(6,110억 링깃)
 - 부문별로는 경제 528억 달러(2,270억 링깃), 사회 309억 달러(1,330억 링깃), 안보·인프라 확충 등에도 적정 예산 배정 예정
- (목표) 차기 5년간('26~'30년) 경제의 질적·양적 발전 및 지속가능성 확보 목표
 - 13MP에 이어 디지털·에너지전환 지속 강조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 주요 거시경제 목표(~'30)

구분	세부 목표
경제 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GDP 성장을 4.5%~5.5%, • 30대 경제국 진입(~2030년) 및 고소득국가 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인당 국민소득(GNI) 약 17,953달러(77,200 링깃)
재정·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 GDP 대비 3% 이하 • 국가부채 60% 이하 관리 • 공공서비스 디지털화 및 의회 개혁
산업·경제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5.8%, 서비스업 5.2% 성장 • Made by Malaysia 고부가 제품 확대 • 민간투자 중심 성장(민간투자 성장을 연평균 6%)
디지털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서비스 95% 온라인화 • UN 전자정부 Top 20 진입 • 5G 보급률 98% 달성 • 디지털 기업가 5,000명 양성

구분	세부 목표
지속가능성·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 원자력 발전 검토 • CCUS 상용화 • 물 관리 개혁(Water Sector Transformation, WST2040) 추진
사회·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미푸트라 경쟁력 강화 • 생활비 완화(현금지원·임금정책) • 취약계층 및 지역 격차 해소

자료: 말레이시아 총리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제13차 말레이시아 계획(13MP) 주요 산업별 발전 목표

구분	세부 목표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IC 설계, Industry 4.0, 로봇·디지털 트윈 도입, • 반도체 수출 전체 대비 고부가 수출 25% 목표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서비스 수출 667억 달러(3,000억 링깃) 목표, • 관광·핀테크·물류·할랄 허브 육성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만 호 공공주택, MRT/LRT, Pan-Borneo, ECRL 프로젝트, • 스마트시티 5G 기반 프로젝트 개발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량 자급률 +10%p 인상 • 스마트 농업 도입
광업/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40% 목표, CCUS 상용화 • LNG 확충, 희토류(REE) 밸류체인 구축 등

자료: 말레이시아 총리실,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구성

□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 정책 프레임워크

- 말련 정부는 MADANI 국정 철학과 13MP를 토대로 세부 산업별 고도화·성장 촉진 정책을 발표, 정부 주도로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 지속
 - (디지털전환) MyDIGITAL과 국가 인공지능로드맵
 - (에너지전환)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ETR)
 - (고부가가치산업) 신산업마스터플랜2030(NIMP2030), 국가반도체전략(NSS)
- 주요 산업·전환 정책 프레임워크 연계도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별 정책 분류

구분	주요정책	핵심목표	협력분야
디지털 전환	MyDIGITAL (Digital Economy Bluepri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경제의 GDP 비중 '20년 22.6% → '25년 25.5% • 일자리 50만개 창출, 공공·민간 디지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정부 • 핀테크, • 데이터센터
	국가 인공지능 로드맵 (National AI Roadma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및 산업분야 AI 적용 • AI 인재 2만 명 양성 	• AI 솔루션
에너지 전환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 (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 탄소중립, 재생에너지 70% 달성 • CCUS·수소·ESS 프로젝트 확대 • EV 보급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생에너지 • CCUS • 전기차, 태양광 • 충전 인프라 • 모빌리티 서비스
첨단제조업 등 산업·투자정책	신산업마스터플랜 2030 (New Industrial Master Plan, NIMP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제조업 육성 • 전기·전자·EV·고부가 소재 집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팩토리 • 자동화 솔루션
	국가반도체전략 (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N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공정 중심에서 IC 설계·첨단패키징·장비까지 확장 • 6만 엔지니어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장비·부품 • 설계·패키징 협력

자료: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① (디지털전환) MyDIGITAL(Digital Economy Blueprint)

- (개요) '21년 발표된 중장기 디지털 전환 정책
 - '30년까지 경제·사회 전반의 포용적이고 책임 있는 디지털 전환을 통해 고소득 국가로 진입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

MyDIGITAL 3대 목표 및 6대 전략 축

3대 목표	6대 전략 축
① 산업 전반의 혁신적 디지털 모델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 최고디지털책임자(CDO) 임명, 전자정부 서비스 확대 • (산업 경쟁력 제고) 중소기업 디지털화 촉진, 규제 개선
② 인적 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인프라 확충) 전국적 광대역망, 클라우드 기반 강화 • (인재 양성) 교육 과정에 디지털 기술 통합, 재교육·업스킬링 확대
③ 전 국민적 디지털 참여 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포용적 사회 조성) 취약계층·농촌지역 대상 디지털 접근성 확대 • (신뢰 환경 조성) 사이버보안 강화, 데이터·AI 윤리 기준 확립

자료: MyDIGITAL,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 (주요목표) '30년까지 3단계 구간별 로드맵 및 달성 목표 제시

MyDIGITAL 구간별 로드맵

성숙 단계	내용
1단계(2021~2022년)	디지털 기반 인프라와 제도 구축
2단계(2023~2025년)	산업·사회 전반의 포용적 디지털화 지속
3단계(2025~2030년)	디지털 콘텐츠 및 사이버 보안 역내 리더로 도약

자료: MyDIGITAL,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MyDIGITAL 달성 목표

주요 달성 목표	목표 수준
디지털 경제의 GDP 기여도	25.50%
중소기업(MSMEs)의 이커머스 채택	875,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	500,000개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	100%
정부 서비스의 온라인 전환율	80%
가구 인터넷 접근성	100%
유니콘 기업 유치	2개(국내 또는 해외)
디지털화 투자 유치	약 163억 달러(700억 링깃)
신생 기업(스타트업) 수 증가	5,000개
생산성 향상	30%('30년까지 전 산업 부문에서)

자료: MyDIGITAL,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 (세부과제) 4가지 핵심 산업부문(농업,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에 대해 28개의 세부 이니셔티브로 구성

MyDIGITAL 단계별 로드맵

타깃 산업	세부 이ни셔티브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동향) 'Farm to Table'을 핵심으로 한 로컬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및 스마트 농업 도입을 위한 중앙 집중식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개발 추진 • (협력 니즈) 스마트 농장 솔루션 도입, 농산물 유통을 위한 이커머스 플랫폼 기술, 농업 데이터 분석 및 관리 시스템 등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동향) 지속 가능한 건설을 위한 신형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및 상용화(R&D&C&I) 강화, 스마트 도시 개발 가속화 • (협력 니즈) BIM(빌딩 정보 모델링) 등 건설 디지털화 기술, 친환경 및 지속 가능 건축 기술, 스마트 도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 기술 협력

타깃 산업	세부 이ни셔티브
제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지 동향) 기술 연구소 및 공공-민간 파트너십(PPPs) 기반 협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산업 4.0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성 향상(협력 니즈) 산업 4.0 관련 기술(예: 자동화, IoT, 빅데이터 분석), 제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제공
서비스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현지 동향) 관광, 금융, 의료, 유통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디지털 채택, 데이터 공유 및 분석, 인재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추진(협력 니즈)<ul style="list-style-type: none">(관광/예술/엔터테인먼트) 관광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 VR/AR 기술을 활용한 가상 관광 콘텐츠 개발, 디지털 마케팅 솔루션(운송 및 물류) 중앙 집중식 운송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세관 행정 효율화를 위한 'uCustoms' 시스템 개발

자료: MyDIGITAL,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재구성

- (기대효과)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여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과 산업 생태계 고도화 견인을 기대

② (디지털전환) 국가 AI 로드맵(National AI Roadmap)

- (개요) AI 기반으로 경제·사회·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5년 중기 계획, '24년 발표
- (비전) AI 기반으로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며, 세계 상위 20대 AI 경제국 진입

국가 AI 로드맵(National AI Roadmap) 핵심 목표



주요 달성 목표 및 내용

- AI 기술 및 서비스의 GDP 기여도 증대 – '30년까지 139억 달러(600억 링깃)까지 확대
- 국가 주요 산업(농업, 헬스케어, 교육, 스마트시티 등) 중심의 AI 활용 확대
- 디지털 포용성 강화 — 지역 격차, 사회적 약자 대상 접근성 확보
- 윤리·책임성 확보 — 신뢰 기반 AI 거버넌스 구조 확립
- 인재 양성 및 생태계 조성 — 스타트업, 연구소, 기업의 유기적 연결

자료: 국가인공지능사무소

- (현황) '25년 12월 중으로 세부 시행 정책(국가 AI 로드맵 2026-2030) 발표 예정
- (기대효과) AI 로드맵은 국가 산업 전반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AI 생태계와의 연계를 통해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AI 기술 및 서비스의 GDP 기여도 확대, 제조·스마트팜·헬스케어 등 핵심 산업의 생산성·효율성 제고

- (신산업창출) 데이터센터·클라우드·반도체 등 연관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신규 양질의 일자리 및 스타트업 성장 촉진

③ (에너지전환)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NETR)

- (개요) '23년 발표한 중장기 에너지 전략으로 에너지 안보·경제성·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에너지 트릴레마 해결이 목표
 - * 에너지 트릴레마 : 안정적 공급(안보) – 에너지 경제성 – 친환경(지속가능성)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한쪽을 강화하면 다른 쪽이 약해지는 구조
- (비전) MADANI 철학 하에 말련을 친환경·고부가가치 녹색경제로 전환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핵심 목표

주요 달성 목표 및 내용

- ① 화석연료 의존도('23년 96%)를 '50년 77%까지 축소, 석탄은 단계적 퇴출, 재생에너지 비중은 4% → 23%로 확대
- ② 에너지전환을 통해 GDP 511억 달러(2,200억 링깃), 31만개의 신규 녹색 일자리 창출 전망
- ③ 2050년까지 전력 부문 재생에너지 설비 비중 70% 확보
- ④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전력 수요관리(수송·산업·상업 부문 절감)
- ⑤ 수소·바이오에너지·CCUS 등 차세대 신에너지 산업 육성
- ⑥ 약 2,800억~3,000억 달러(1조 2억~1조 3억 링깃) 규모 민간·공공 합산 투자 유치 및 녹색금융 활성화

자료: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National Energy Transition Roadmap)

- (기대효과) 에너지 믹스 전환 가속화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기대

- (에너지안보강화) 에너지 다변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전력 공급망 확보
- (경쟁력 제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른 탈탄소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공급망 구축, 해외 투자자 신뢰 확보

*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 EU에서 도입한 무역·기후 정책으로 수입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가격에 반영해 과세

④ (산업정책) 신산업 마스터플랜(New Industrial Master Plan, NIMP 2030)

- (개요) '23년 발표한 중장기 산업정책('23~'30년)으로 국가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 최상위 로드맵
 - (내용)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속 구조적 한계 개선을 위한 산업 체질 전환 전략
 - (구조적 한계) 생산성 정체, 지역 간 불균형 및 현지기업의 GVC 통합 미흡 등
 - * 기존 산업 마스터플랜(Industrial Master Plan, IMPs)의 연장선에 있으며 산업별 성장전략, 가치사슬 고도화, 인력개발, 투자유치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
- (비전) MADANI 국정 철학을 이어 고부가가치 중심의 산업으로 제조업을 탈바꿈해 고소득·포용적·지속가능 국가로 발전

신산업 마스터플랜(NIMP2030) 정량 목표

주요 달성을 목표	목표 수준(~'30년)
제조업 부가가치(Manufacturing Value Added) 향상	5,875억 링깃 ('23년 수준 대비 연평균 6.5% 성장 목표)
고숙련 일자리 발굴을 통한 일자리 창출	약 3,300만 명 ('23년 수준 대비 연평균 2.3% 성장 목표)
중위임금(Median Wage)의 상승	1,049 달러(4,510 링깃) ('23년 460달러(1,976 링깃) 대비 연평균 128% 증가 목표)
신성장분야 투자유치	7년간 총 221억 달러(950억 링깃) (정부 재정 10%, 나머지는 민간 자본 유치)
균형 발전(주별 투자 균형 개선)	25% ('21년 기준 주 GDP 대비 투자 평균 13%)

자료: 신산업마스터플랜(NIMP)

- (목표) 경제복잡성 제고, 디지털전환 가속화, 넷제로 달성, 경제안보 및 포용성 강화의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주요 산업 고도화
 - (경제복잡성 제고) 반도체 IC칩 설계(제조), 특수화학 및 첨단소재(화학) 등
 - (디지털전환) 클라우드·사이버보안·AI(디지털인프라), 공장 자동화 등
 - (넷제로) 산업계 전반의 탈탄소화 및 전기차, CCUS 등 기술 발전
 - (경제안보)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및 5대 핵심광물 다운스트림 개발
 - * 5대 핵심광물 : 희토류, 보크사이트, 아연광, 규사, 고령토
- (기대효과) 첨단 및 지속가능한 산업 구조로 발전해 경제의 질적·양적 성장 도모

⑤ (산업정책) 국가반도체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NSS)

- (배경) 미국 Chips Act와 같은 주요국의 반도체 리쇼어링 정책의 확산과 미·중 패권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움직임
- (개요) 반도체 산업의 첨단 기술로 도약을 위한 중장기 산업전략, '24년 발표
- (비전) 말련을 포괄적인 제조 및 서비스 활동을 아우르는 반도체 연구·개발·상용화 및 혁신(RDCI)의 허브로 구축
 - 특히나 기존 노동집약적이고 후공정(OSAT) 중심의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 집적회로(IC) 설계, R&D 및 첨단 패키징과 같은 고부가가치 활동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 견인 목표
- (실행계획 및 주요 성과지표) '30년까지 구간별 청사진과 주요 목표를 설정

국가반도체전략(NSS) 단계별 로드맵

단계	세부 목표
(1단계) 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OSAT 산업 역량을 활용하여 첨단 패키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 • 전력 반도체(power chips)와 같은 레거시 칩(trailing-edge chips) 분야의 기존 웨이퍼 팝(wafer fab) 시설을 확장 • 현지 집적회로(IC) 설계 기업을 '글로벌 챔피언'으로 육성
(2단계) 기술 최전선으로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단 반도체 제조 기업(advanced fab companies)을 유치하여 로직 및 메모리 칩 설계, 제조, 테스트 등 반도체 기술의 최전선 영역으로 진출
(3단계) 글로벌 시장 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제품 및 솔루션 제공자 및 지역시장 생산자

국가반도체전략(NSS) 주요 정량 목표

분야	세부 목표
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웨이퍼 팝, IC 설계, 첨단 패키징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서 최소 1,162억 달러 (5,000억 링깃)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및 국내 직접투자(DDI) 유치
기업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 2.3억 달러(10억 링깃) 이상 기업 100개 이상 육성
연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수준의 R&D 센터 및 CoE(Centers of Excellence) 구축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00명의 숙련된 현지 엔지니어 양성

자료: 국가반도체전략(National Semiconductor Strategy)

- (기대효과) 전통적인 후공정은 물론, 전 공정의 역량을 확보해 말련의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 내 위상 강화
 - (첨단 패키징 및 IC 설계) AI 기반 검사기기, 자동화 솔루션 및 스마트 제조 장비 등은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 고도화 과정에서 핵심 협력 수요로 부각
 - (인재개발 및 R&D 생태계) '30년까지 60,000명의 숙련된 엔지니어 양성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 등 기술 선진국과의 산학연 협력, 공동 연구 프로젝트 증가 기대
 -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정학적 중립성을 기반으로 기업들이 공급망의 안정성과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매력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것 전망

3. 주요 이슈 Pick

가. 말레이시아의 재정 건전성 제고 정책

□ 배경 및 개요

- (배경) 펜데믹을 거치면서 정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나 재정적자 급증
 - '24년 기준 말레이시아 정부의 보조금 및 사회지원 지출은 약 142억 달러(614억 링깃) 규모로, 전년 대비 약 16% 증가
 - * 정부 전체 지출 중(약 876억 달러) 약 15.6%를 차지
 - 만성적인 재정적자는 정부 부채 증가, 정부의 이자 상환 부담 확대 및 대외신인도 저하 요인으로 작용
- (개요) 현 정부 들어 주요 정책과제로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재정 건전성 제고책 추진

□ 최근 동향

- (보조금개편) 말련 정부는 보조금 합리화(Subsidy Rationalization) 정책을 필두로 디젤유, 식료품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 중
- 이와 더불어 판매 및 서비스세(SST) 확대, 글로벌 최저한세(15%), 디지털세 도입 등의 재정 개혁을 추진 중이며 '26년에도 지속 예정

말레이시아 주요 보조금 축소 정책 연혁

주요 정책	시행 시기	세부내용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	'25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 BEPS 2.0 합의에 따라 말레이시아 내 매출 7억 5,000만 유로 이상 다국적기업 소득에 최소 15% 과세
판매 및 서비스세(SST) 과세 대상 및 비율 확대	'25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 범위를 비필수 소비재·서비스 등으로 확대 • 기존 6% 서비스세 적용 범위를 물류·디지털 서비스·전문직 서비스 등으로 확대 • 일부 고가 소비재·사치품에는 세율 8% 적용
범용 보조금 합리화 정책 (Subsidy Rationalisation)	'25년 하반기 → '26년까지 단계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료(RON 95)에 대한 보조금 '25년 하반기부터 단계적 축소, 저소득층(B40-M40) 중심 표적 보조금으로 전환 • 식품(닭고기, 달걀 등 주요 생필품) 등에 대한 보조금 단계적 폐지 및 저소득층 현금지원 방식 전환

자료: 언론보도 종합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요인) 에너지·식품 유통 산업의 가격 경쟁 구조 변화로 신규 사업 수요 증가
 - 스마트 에너지 관리, 재생에너지, 고효율 설비 수요 확대로 연결 가능
- (잠재위협) 소비심리 둔화 및 기업의 운영비용 증가로 인한 부담 가중
 - 소비재·유통·외식업 전반의 세부담 증가로 실질 물가 상승 압박
 - 전기세·인지세·창고 및 오피스 임차 등 기업의 운영비용 전반 인상

나. 디지털·에너지 전환 가속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와 신규 수요

□ 배경 및 개요

- (배경) 말련 정부는 디지털 전환과 에너지전환을 국가 차원의 성장축으로 삼고 국가 발전 중기계획(13MP)의 핵심 과제로 선정
- (개요) 산업별 세부 중장기 정책을 발표하며 정부 주도로 적극적 전환 추진
 - (디지털) 제조업·서비스업 전반에 스마트팩토리·AI·데이터센터·클라우드 확산을 지원하고 2030년 까지 최소 3,000개의 스마트공장 구축 목표 추진
 - (에너지)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 달성, 대규모 태양광·수소·바이오매스 프로젝트 및 탄소 포집·저장(CCUS) 기술 상용화 추진

□ 최근 동향

- (산업전환) 정책 발표 이후 실제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개편 및 국가 프로젝트로 이어지며 산업 구조 변화가 활발히 진행 중
 - *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JS-SEZ)를 통한 데이터센터·스마트 제조 유치, 대형 태양광(LSS4, LSS5) 프로젝트 착수 등
- (규제강화) 동시에 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규제 강화 기조도 병행
 - (디지털) 데이터센터·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법(PDPA)개정에 따라 데이터 현지화 및 사이버보안 요건이 강화되는 추세
 - (에너지) 재생에너지·배터리·희토류(REE) 프로젝트는 환경영향평가(EIA), ESG 규제, 외자 지분 제한 등 허가 절차 고도화, '26년 탄소세 도입 예고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요인) 신기술 수요 증가로 수출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 수요 증가
 - 스마트제조 솔루션, 데이터센터 인프라 장비, 클린에너지 기술 수출 확대 기회
 - CCUS, 친환경 포장재는 환경세 도입과 맞물려 현지 기업과의 협업 수요 증가
- (잠재위협) 인프라 제약 및 강화된 규제의 비관세장벽화
 - 전력·수자원 인프라 제약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의 허가 지연 우려
 - 희토류·배터리 등 일부 분야는 현지 규제·허가 절차 복잡, ESG 요구 강화로 초기 비용 상승 주의
- 말련의 디지털·에너지 전환 움직임은 단순한 정책 구호가 아닌 실제 투자 프로젝트와 제도 개편과 연계되며 한국 기업의 디지털·ICT·재생에너지·ESG 분야 진출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인프라 제약·환경 규제라는 유의해야 할 리스크도 동반하고 있음

다. 인력·노무 환경 변화와 외국인 노동 규제 강화

□ 배경 및 개요

- (고숙련 인재양성) 첨단산업 고숙련 인력 확보는 정부의 최우선 과제
 - * 국가반도체전략(NSS) 등을 통해 향후 10년간 고숙련 엔지니어 6만명 이상 양성 추진
- (노동시장 이중구조) 산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고숙련 인력이 부족하고 저임금·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심화되는 구조 지속
 - 정부는 내국인 고용 확대·인재양성과 동시에 외국인 저숙련 인력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 병행

□ 최근 동향

- (쿼터축소) 말련 인적자원부(MOHR)는 내국인 일자리 보호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중장기 목표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 쿼터 축소 계획 발표('25년 8월)
 - * 현재 15%에서 '26년까지 10%로 축소 계획
- (비자개편) 또한, 내무부(MOHA) 및 이민국(JIM)은 약 246만 명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재개하되
 - 기존의 민간 신청 방식을 폐지하고 부문별 지정 기관만 신청 가능하도록 제도화
 - * 무분별한 인력 유입을 차단하고, 농업·제조·건설 등 전략 부문 중심 제한적으로 인력을 배분하려는 의도로 해석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잠재위협) 현지 진출 우리 기업 다수가 제조업 기반이라는 점에서 외국인 노동규제 강화는 직접적인 비용 상승 압박 요인으로 작용
 - (노동비용 상승) 최저임금 인상과 외국인 고용 규제 강화로 인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해 온 제조업·노무집약 산업의 원가 부담 심화
 - (인력확보 불확실성) 첨단 제조업(반도체·의료기기·배터리)은 숙련 엔지니어 확보 경쟁이 심화되며 인력 수급 지연 우려
 - * 특히 비자·고용허가 심사 강화로 인해 행정 절차 지연, 추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할 수 있으며 신규 프로젝트 추진 시 인력확보 리스크 사전 고려 필요

- 따라서 우리 기업은 장기적으로 산학협력을 통한 현지 인재양성과 고용 확대, 단기적으로는 로컬 벤더·인력공급사 활용을 통한 유연한 HR 운영 등을 통한 인력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현지 내 신뢰도를 제고 할 필요가 있음

라. 부미푸트라, 할랄 등 제도 장벽의 강화 추세

□ 배경 및 개요

- 말련 부미푸트라(Bumiputera)우대정책과 할랄(Halal) 인증제도는 정부의 사회·경제적 형평성 제고와 글로벌 할랄 허브 전략을 명분으로 강화되는 추세
 - * 부미푸트라 : 말레이어로 ‘땅의 아들’을 지칭하며 이슬람교를 믿는 말레이계와 원주민을 통칭, 부미푸트라는 사회·경제적 약자 보호 및 형평성 제고를 명분으로 한 각종 우대 정책의 수혜 대상이 됨
- 외국 기업이 현지에서 사업 추진 시 가장 빈번하게 직면하는 대표적인 규제로 작용
 - 주요 기간산업은 부미푸트라기업만 진출 가능하게 제한하거나 기업 내 부미푸트라 직원 수를 할당하는 등 경영 전반에 영향
 - 관련 정책 변화에 따른 추가 비용·인증 절차·파트너십 의무 등 불확실성 상존

□ 최근 동향

- (부미푸트라) 부미푸트라 경제회의('24년)와 부미푸트라 경제전환계획(PuTERA35)을 통해 부미푸트라 우대 혜택 및 확대 기조 지속
 - * 부미푸트라 지분 소유율 30% 달성, 고숙련 일자리 70% 이상 점유 등을 정량 목표로 설정
- (할랄) 13MP에서 할랄산업의 GDP 기여를 11%까지 확대한다는 목표 제시
 - 수출 목표를 178억 달러(800억 링깃)으로 제시하며 전방위 할랄 생태계 확대정책을 추진
- 최근 말련 정부는 할랄 기준과 부미푸트라 조건은 포기할 수 없는 절대 원칙(Red Line)이라는 강경 입장을 표명하며 당분간 제도 강화 추세 지속 전망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 한–말 FTA에 할랄 협력이 포함되어 우리나라 할랄산업 접근성 개선 예상
- (기회/위협) 할랄인증은 시장 확대의 기회와 동시에 비용·절차 부담이 공존
- (잠재위협) 부미푸트라 요건 강화 시 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 파트너십 필요
 - 특히 보호주의적 규제 강화로 인해 중소기업 단독 진출 시 부담 확대
 - 건설·조달 분야에서는 부미푸트라 지분 보유 현지 파트너와의 합작(JV)을 통한 진출이 사실상 필수
- 말련 정부는 부미푸트라 우대정책과 글로벌 할랄 허브 전략을 강화해 외국 기업에게 사업 확장의 기회임과 동시에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은 진출 시 비용·인증·파트너십 확보 등 사전 대비가 필수적

마. 통상다변화 정책으로 교역·투자 확대 기반 마련

□ 배경 및 개요

- 전통적으로 말련은 비동맹·중립 노선을 중시하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 국면에서 통상다변화를 통해 수출·투자 경쟁력 제고 노력
- 말련 정부의 新동방정책과 우리 정부의 新남방정책 간 시너지로 한–말 교역 및 투자 확대 추세

□ 최근 동향

- (통상다변화) 주요 교역상대국인 미·중 간 균형외교를 기반으로 타경제권과 교역·투자 확대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제고
 - (ASEAN) '25년 ASEAN 의장국으로서 아세안 디지털경제프레임워크(DEFA), 아세안–중국 FTA 업그레이드 추진
 - (미·중)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하는 동시에 중국과 산업·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양쪽 모두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 거듭 강조
 -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련 방문, 양국 상호무역협정 체결하며 파트너십 강화('25년 10월)
 - (중국) 시진핑 주석 말련 방문, 50년 간 고위급 전략적 동반자 관계 심화 선언('25년 4월)
 - (그외 지역) EU·GCC·EFTA 등 주요 경제권과 외교·통상 다변화 추진
 - * '25년 1월 EU와 FTA 협상 공식 재개, '25년 5월 GCC와 협상 개시 선언, '25년 6월 EFTA와 협상 타결 등
- (한–말 FTA) '25년 10월 한–말 FTA 공식협상 타결되며 AKFTA 및 RCEP대비 교역 자유화 수준 확대
 -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 288개 추가 자유화
 - 디지털, 녹색경제, 할랄 등 경제협력 분야 명시

□ 우리 기업에의 영향

- (기회요인) 말련의 통상다변화 전략과 한–말 FTA 협상 타결은 우리 기업에 새로운 협력 및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
 -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은 미·중 양측과 협력 가능한 균형외교 환경에서 교역 안정성이 확보되며 우리 기업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
 - 디지털·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분야는 말련 정부의 육성정책과 한–말 FTA의 제도적 기반으로 진출 여건 개선
- (잠재위협) 미·중 전략경쟁이 심화할 시, 특정 산업·제품이 산발적 제재나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고, BRICS와 협력 강화되며 미국 제재 우려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28
2. 유망 산업	53
3. 협력 기회	66

II 시장 분석



1. 시장 현황

- (시장특징) 동남아 지리적 허브로서 주요 제조업 생산 거점이자 다문화·다인종 사회로 동남아·중동·서남아 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
- (무역) 제조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원료를 수입해서 가공·생산해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발달, 반도체 및 원유·정유 중심의 수출입 구조
- (산업) 천연자원을 활용한 기간산업과 글로벌기업의 진출과 함께 반도체 전기·전자를 중심으로 제조업 발달
- (투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조호르-싱가포르 경제특구 영향으로 '25년에도 외국인투자유치 지속, 최근 제조업 투자유치에서 서비스업 투자유치로 전환 추세'

가. 시장 특징

□ 시장 주요 특징

- (지정학) 동남아시아의 지리적 허브로 미·중 패권 경쟁의 완충지대
 - (육로) 북쪽에 태국, 남쪽에 싱가포르·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 인접
 - (해로) 말레이반도 서쪽에 세계 3대 해상 운송로인 말라카해협 위치
 - * 전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5% 이상이 통과하는 것으로 추정
 - (대체시장) 미·중 패권 경쟁으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반도체산업 대체 투자처로서 지정학적 중요도 증가
- (전통산업) 정부 주도형 개방경제와 천연자원·제조업 기반 산업 구조
 - (정부주도) 5년 단위 경제개발계획 통한 체계적 경제 발전 및 RCEP, CPTPP, 양자FTA 등 적극적 통상정책 추진
 - * 양자 FTA 체결국(체결년도) : 일본('06년), 파키스탄('08년), 뉴질랜드('10년), 인도('11년), 칠레('12년), 호주('13년), 튀르키예('15년)[타결 : EFTA('25년), 한국('25년), 협상 중 : EU, GCC]
 - (천연자원) 원유, 천연가스, 팜오일, 고무, 주석 등 천연자원 부국으로 동남아 주요 산유국이자 아태 지역의 주요한 LNG 공급원
 - * 세계 생산 순위 : 팜오일(2위), 천연고무(7위), 주석(아태 지역 6위), 원유(27위), 천연가스(11위)

- (제조업) 안정적인 인프라와 풍부한 영어 구사 인력으로 전기·전자, 석유화학, 자동차 및 부품 분야 글로벌 제조기업의 생산 거점으로 기능
 - * 주요 글로벌 제조기업 : (전기·전자) 인텔, 인피니온, 마이크론, 히타치, 필립스 등, (석유화학) 쉘, 엑손모빌 등, (자동차) 혼다, 토요타, BYD 등
- (신산업) 디지털화와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 개편 및 발전
 - (디지털화) 정부 주도로 디지털경제 활성화를 위해 범국가적 디지털전환 추진
 - * 대표 정책 : MyDigital, 국가 AI 로드맵 등
 - (첨단산업) 반도체, 전기차, 의약품 등 미래성장산업 중심으로 제조업 개편 추진
 - * 대표 정책 : 신산업 마스터플랜(NIIMP) 2030, 국가반도체전략(NSS) 등
- (재정건전화) 만성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재정 건전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나 물가 및 비용 상승 압박으로 소비, 투자 일부 위축 가능
 - (재정적자) 팬데믹 시기 재정적자 심화, '24년 기준 GDP대비 재정적자 4.1%이며 '30년까지 비율 3% 이하로 관리 목표
 - (세재개편) 판매 및 서비스세(SST) 인상 및 적용 범위 확대, 배당소득 과세 도입, 저가상품세 도입 (LVG) 등 세재 개편
 - (보조금축소) 유류보조금, 전기요금 차등요금제 등 보조금 합리화 및 축소
- (시장이분화) 말레이시아가 주도하는 공공분야, 중국계가 주도하는 민간분야
 - (공공) 국가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종 및 주요 국책사업은 외국인 기업 진출 제한과 말레이시아를 우선하는 부미푸트라 우대 정책 적용
 - * 주요 업종 : 공공조달 및 정부계약, 석유·가스, 에너지, 인프라프로젝트 등
 - (민간) 화교 자본은 금융, 부동산, 식품, 유통 등 민간 분야에서 우위 선점

□ 구매력 및 소비성향

- '25년 1인당 GDP 13,145 달러로 동남아시아 3위, 역내 최대 중산층 보유
 - 높은 구매력 바탕으로 양질의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관심 높아지는 추세
 - 프리미엄 소비재 시장 연간 10.3% 성장 예상되며 고품질·고가 제품 수요 증가

말레이시아 2022년 인종별 소득 상·중·하위 구간의 월소득

(단위: 달러)

인종		인종 내 소득 구간 별 월소득 기준치		
구분	비중	하위 40%	중위 40%	상위 20%
부미푸트라	70.3	1,080 미만	1,080 이상 2,373 미만	2,373 이상
중국계	22.5	1,477 미만	1,477 이상 3,264 미만	3,264 이상
인도계	6.5	1,240 미만	1,240 이상 2,664 미만	2,664 이상
기타	0.7	864 미만	864 이상 1,704 미만	1,704 이상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

- 다문화·다인종·다종교 사회로 인종별 구매력 및 소비 성향 상이
 - (종합) 식민 통치 시절 인종 분리 정책의 잔재로 인종별 빈부격차가 남아있으며 인종별 종교적 가치관과 생활양식의 차이가 소비 패턴에 반영
 - (부미푸트라) 이슬람을 믿는 말레이계로 전체 인구의 70%에 육박하나 소득 하위층 비중이 높고 종교적 가치관이 주요 소비 기준
 - (중국계) 전체 인구의 22% 수준으로 소득 상위층에 집중되어 프리미엄 소비시장의 주축으로 브랜드 충성도가 높으나 신제품도 개방적
 - (인도계) 전체 인구의 6% 수준으로 소득 상·중·하위층에 고르게 분포, 인도식 생활방식과 식재료에 대한 충성심이 높은 반면 외국산에는 관심 낮은 편

□ 주요 인증

- (대표인증기관) SIRIM은 말련 재무부 산하의 공식 표준 산업 연구기관으로 제품 표준 인증·품질 관리 및 시험·검사를 주관
 - (분야) 말련 시장에서 판매·유통되는 모든 제품(전기·전자제품, 건축자재 등)에 대해 기술규격에 부합하는지 인증 및 심사
 - (의무대상) 국가기관이 의무인증으로 대상한 품목은 SIRIM 인증·심사 및 라벨 부착 필수
- (일반요구사항) 말련회사위원회(Suruhanjaya Syarikat Malaysia, SSM) 사업자등록 및 수출입 라이선스 필요
 - 산업을 불문하고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요구하는 경우 다수
 - * 이하 기술하는 제품별 요구사항은 세부 제품에 따라 상이해 참고 자료로만 활용
- (전기·전자) SIRIM, 전기제품 안전(ST COA), 유해물질제한(RoHS)
 - (ST COA) 전기제품의 안전성과 에너지 효율성 준수 확인, 말레이시아 에너지위원회(Suruhanjaya Tenaga, ST)에서 관리하고 SIRIM에서 인증 발급

- (RoHS) EU에서 시작된 유해물질 사용제한 환경규제로 납, 수은, 카드뮴 등 6종 유해물질 총량 제한, IAS같은 인증기관 통해 심사·인증서 취득
- (식음료) 필수-우수제조기준(GMP), 식품안전정보시스템(FoSIM) 제품등록, 조건부-HACCP, 할랄인증 등
 - (GMP) 제조 공정 전반 및 제품의 품질·위생 관리 제도, 말련 보건부 소관
 - (FoSIM) 말련 내 식품 유통을 위한 전자등록시스템으로 제품 성분표, 원산지, 제조사 정보, 유통기한 등 사전 검토
 - (HACCP) 모든 식품에서 필수는 아니나 일부 고위험 식품, 수출용 식품, 일부 대기업 식품 등에 의무 적용
 - (할랄인증) 동물성 성분 포함 식음료는 할랄인증 의무 대상, 말련 할랄인증은 이슬람개발부(JAKIM)에서 발급하나 국내기관 인증도 상호인정 가능
- (화장품)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제품 등록, GMP 등
 - (NPRA) 화장품 제조·수입·판매 전 제품 안전성 통지책임자(CNH)가 온라인 시스템(QUEST3+)에 사전 제품등록 및 심사 필수
 - * 통지책임자는 SSM에 법인으로 설립된 법적 단체로 자격이 제한되어 대리인 선정 필수
- (의약품) 국립의약품규제기관(NPRA) 제품등록, GMP, 의약품통제청(DCA) 제품등록 등
 - (DCA) 의약품 및 특정 건강·개인용 제품 유통을 위해 사전에 의약품통제청 등록 및 승인 필요, 국립의약품규제기관 산하기관
- (의료기기) 의료기기청(MDA) 사전 등록, 현지 공인대리인(AR) 지정
 - (MDA) 제품 위험도에 따라 제품 Class A~D까지 구분, 현지 공인대리인 통해 기술문서 준비 및 등록, 보건부 산하기관
- (통신·IT장비) SIRIM 인증 및 통신미디어위원회(MCMC) 적합성 인증 등
 - (MCMC) 말레이시아 통신·방송·멀티미디어 산업 규제기관으로 모든 통신기기는 MCMC의 승인 (Type Approval) 필요
 - (SIRIM) MCMC 공식인증대행기관으로 MCMC 승인서(CoC) 발급

□ 말레이시아 시장의 전략적 가치

- (테스트베드) 높은 구매력과 다문화 특성으로 동남아·서남아·중동 시장으로 확장 기대
 - (소득수준) 중산층이 두텁고 소득수준에 따라 시장 세분화
 - (다문화) 무슬림계-중동 및 인니, 중국계-타 동남아 및 중국, 인도계-서남아 등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 가능

- (할랄) 글로벌 할랄산업의 허브로서 국가 주도로 전략적으로 산업 육성
 - (입지) 이슬람 경제 종합지표 GIEI 11년 연속 1위 기록하는 글로벌 할랄산업 선두자
 - * GIEI(Global Islamic Economy Indicator) : 이슬람국가에서 할랄 경제 생태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축 했는지 평가하는 대표 지표
 - (국가전략) 할랄 소비자 인식 제고와 국가적 중장기 산업발전책 수립
 - * 할랄산업마스터플랜(HIMP) 2030 : '23년 발표된 할랄 산업·무역 고도화 정책
 - * 국가할랄정책(NHP) 2035 : '24년 발표된 할랄산업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 수립 정책
- (디지털) 디지털전환으로 ASEAN의 첨단산업 및 서비스 분야의 허브로 기능
 - (인프라) 관 주도 스마트시티, 전자정부, 5G 통신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 (서비스) 주변국 대비 높은 소득수준과 우수한 IT역량 등 서비스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주변국과 연결성이 높아 동남아 지역의 허브 구축 여건 양호

나. 무역

□ 수출입 동향

말레이시아 수출입 규모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누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역외수출	312.8	△11.3	330.4	+5.6	173.7	+12.3
역외수입	265.7	△9.8	300.3	+13.0	161.1	+14.5
무역수지	47.1	△19.0	30.1	△36.1	12.6	△10.2
총 교역	578.5	△10.6	630.7	+9.0	334.8	+13.3

자료: Global Trade Atlas

- (개요) 주요 제조 선진국으로부터 중간재 및 원료 수입하여 가공 및 생산해 재수출하는 가공무역 발달
 - (교역국) 글로벌 반도체 및 전기·전자 품목 공급망과 에너지 수요를 연결하는 제조·가공형 교역 파트너가 다수
- (경쟁력) IMD 세계 경쟁력 세계 23위('25년), 수출 다변화정책은 경쟁력 상승 요인이며 미국 상호 관세는 상대적 장점이자 장기적 리스크로 작용
 - (美상호관세) '25년 9월 기준 상호관세율 19%로 싱가포르의 낮은 관세율(10%) 대비 높은 편이나 아세안 주요국 대비 낮아 상대적으로 우위 선점

- (호조요인) '25년 7월 기준 상호관세 부과 전 선출하를 위해 반도체 수요가 전년 대비 17.3% 증가하며 수출 증가 견인
 - 수출 다변화 정책으로 미·중 교역의존도 감소 추진
- (잠재적위협) 상호관세로 인한 장기적 수출 경쟁력 약화, 특히 수출의존도 높은 반도체 및 전기·전자 품목의 비미국계 기업 대상 관세 부과 가능성
 - BRICS 협력 강화하는 추세로 미국의 잠재적 제재 조치 리스크로 작용 가능

□ 주요 교역 국가

- (수출국) '25년 상반기 기준 말련의 수출 상위 3대 국가는 싱가포르(270억 달러), 미국(254억 달러), 중국(198억 달러)이며 한국은 11위(56억 달러) 기록
 - (대표품목) 전자직접회로, 전화기·통신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 전기·전자품목 및 정제 석유제품, 액화천연가스, 원유 등 석유화학분야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수출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1	싱가포르	48,178	50,549	27,059
2	미국	35,367	43,672	25,490
3	중국	42,147	41,152	19,854
4	홍콩	19,710	19,512	10,415
5	대만	9,494	14,724	8,996
6	일본	18,837	18,075	8,731
7	태국	12,908	12,909	7,142
8	베트남	11,374	11,745	5,790
9	인도네시아	11,165	11,927	5,654
10	인도	9,990	11,405	5,632

자료: Global Trade Atlas

- (수입국) '25년 상반기 기준 말련의 수입 상위 3대 국가는 중국(370억 달러), 싱가포르(174억 달러), 미국(171억 달러)이며 한국은 7위(68억 달러) 기록
 - (대표품목) 전자직접회로, 전화기·통신기기, 자동자료처리기기 등 전기·전자부품 및 석유화학 원자재 등

말레이시아 상위 10대 수입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명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1	중국	56,734	64,932	37,070
2	싱가포르	31,489	36,180	17,403
3	미국	19,496	27,751	17,177
4	대만	18,403	23,914	16,058
5	일본	15,580	15,333	7,343
6	인도네시아	13,243	13,581	7,077
7	대한민국	12,111	12,139	6,868
8	태국	11,946	12,159	5,751
9	사우디아라비아	9,569	8,171	3,712
10	베트남	6,019	6,403	3,631

자료: Global Trade Atlas

□ 對韓 교역 동향

- (교역) '24년 한-말 교역액은 244억 달러로, 말련은 한국의 12대 교역국
 - 對말련 수출액은 104억 달러(전년대비 7.0% 증가), 對말련 수입액은 140억 달러
 - 무역수지는 36억 달러 적자

한국의 對말련 교역 동향

(단위: 십억 달러, %)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상반기
수출액	10.1(+11.3)	11.5(+13.5)	9.8(△14.9)	10.4(+7.0)	5.6(△0.02)
수입액	10.5(+17.6)	15.2(+45.8)	45.2(△0.1)	14.0(△8.2)	6.9(+1.0)
교역액	20.6(+14.4)	26.7(+30.0)	25.0(△6.5)	24.4(△2.3)	12.5(+1.0)
무역수지	-0.4	-3.7	-5.4	-3.6	-1.3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對대 말레이시아 10대 수출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연간)				2025년 상반기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출	10,443	+7	-	총 수출	8,542	+16
1	집적회로반도체	2,278	+23	1	집적회로반도체	2,129	+168
2	휘발유	1,425	+29	2	휘발유	489	△37
3	합성고무	388	+36	3	제트유및등유	205	△38
4	기타정밀화학원료	348	△39	4	합성고무	175	△3
5	경유	310	+17	5	중유	159	+3
6	기타산업기계	273	+27	6	경유	139	△12
7	전산기록매체	272	+518	7	기타산업기계	135	△43
8	중유	258	+28	8	기타정밀화학원료	129	+11
9	합성수지	249	+13	9	인쇄회로	119	△65
10	냉연강판	214	+1	10	합성수지	114	△7

자료: 한국무역협회

- (반도체) 반도체 및 제조장비 호황이 對말련 수출 회복세를 견인
 - 한국의 반도체 수출 호조 속 현지 후공정 기반 강화가 맞물려 對말련 수출이 증가
 - * 한국 반도체 전체 수출은 전년('23년) 대비 43.9% 증가
 - * 말련은 글로벌 후공정(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아웃소싱 등)허브로, 전세계 시장 점유율 13%
- (석유제품) 말련은 원유정제능력이 부족해 고품질 정제유에 대한 구조적 수입 수요 반영
 - 단, 국제유가 변동이나 역내 거래 흐름 변화에 따라 수입 규모·가격 변동 多
- (철강·기계류) 산업재 수요 변동성 반영, 산업기계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
 - 최근 한국기업의 인프라·제조설비 투자 반영된 것으로 추정

한국의 대말레이시아 10대 수입 품목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2024년				2025년 상반기 누계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순위	품목명	수출액	증감률
-	총 수입	13,981	△8	-	총 수입	7,563	+29
1	천연가스	3,385	△16	1	천연가스	1,869	+24
2	집적회로반도체	1,859	△10	2	반도체제조용장비	1,025	+43
3	반도체제조용장비	1,483	+44	3	집적회로반도체	960	+6
4	중유	1,087	△8	4	중유	311	△38
5	컴퓨터	492	+310	5	컴퓨터	298	△5
6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04	+20	6	식물성유지	250	+30
7	식물성유지	393	+7	7	알루미늄괴및스크랩	187	+10
8	개별소자반도체	350	△4	8	원유	181	-
9	컴퓨터부품	267	+77	9	컴퓨터부품	144	+19
10	기타정밀화학제품	208	+16	10	개별소자반도체	143	△16

자료: 한국무역협회

□ 말레이시아 주요 수출 성공 사례



성공 사례로 보는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한국 양자컴 기술 첫 국가협력

- 제품의 비교우위
 - 국내 양자컴퓨터 기술 기업 A사가 말레이시아 정부연구기관 MIMOS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첫 양자 기술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한 사례
 - 필수 인증 : 기술 수출 및 연구 인프라 구축 관련 국제 보안·암호 기술 인증 요건(예 : 양자 암호 시스템의 국제 규격 준수)
 - 현지 정부기관과 협업 시 표준화 인증·정부 연구 인프라 인증 요건 충족
 - 성약 소요기간 : 2년 이상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직접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A사 사례는 한국 양자 기술 수출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양자 기반 응용 솔루션(암호, AI 보안, 통신) 쪽 준비 강화 제안
- * 언론보도내역 : <https://www.mt.co.kr/tech/2025/02/28/2025022623141156726>



성공 사례로 보는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 피자 프랜차이즈 기업의 현지 수출 성약

- 제품의 비교우위
 - 1인 피자로 시작해 파베이크 도우, 전용 고온 오븐, AI 기반 토픽 시스템 등 차별화된 컨셉 → 현지 젊은 세대·싱글가구·배달 소비 트렌드와 적합
 - * 현지 피자는 저용량·저가가 많아 글로벌 피자 프랜차이즈도 한국의 레귤러 사이즈가 현지의 라지 수준
- 필수 인증 : HACCP, MESTI 등 식품 안전 인증 등
- 성약 소요기간 : 1년
- 바이어 발굴경로 : 무역관 직접 발굴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현지 파트너 H社의 경우 기존 농화학, 에너지 분야 대기업
 - 최근 소비재·프랜차이즈 분야로의 사업 확장을 활발히 추진 중인 과정에서 한국 기업과의 협업점을 포착, 양사의 발빠른 대응으로 현지 진출 기회로 연결
- * 언론보도내역 :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507010725>

□ 주요 경쟁국 동향

- (중국) 말련의 최대 교역 파트너(15년 이상)이자 경쟁자로 '24년 기준으로 전체 교역 비중에서 약 17.1%를 차지
 - (동향) 최근 중국은 내수 수요를 넘어선 과잉생산을 간헐적으로 겪고 있으며, 팬데믹 이후 다양한 산업(기계, 식품, 화학, 제약 등)에서 공급 과잉
 - 전기자동차(EV), 반도체, 태양광 등 신산업분야에서도 말련 진출이 확대되면서 로컬기업들과의 경쟁 심화
 - * 이에 따라 동남아를 비롯한 신흥시장으로의 '밀어내기 수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동남아 국가들에서는 가격경쟁력 압력을 가중시켜 말레이시아 현지 중소기업(SME)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 (견제) 최근 들어 중국 기업 대상 관세·덤핑 관세 도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와 외국 투자 제한 및 사업 허가 조정 등이 논의
 - 기술집약 및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중국 투자유치는 허용하며 저부가산업 경쟁 제한 조치는 병행하는 형태로 검토
- (미국) 말련 2대 교역 파트너로 디지털·첨단제조업 전환의 핵심 파트너
 - (동향) 상호관세 19% 부과하며 반도체 선출하로 '25년 상반기 수출 증가했으나 '25년 하반기부터 수출 복구되며 점진적 하락 예상
 - (특징) 对미 무역흑자 구조가 지속되어 관세 부과 지속 모니터링 필요
 - * '20년 이후 5개년 연속 무역흑자, 5개년 평균 무역흑자 105억 달러

- (ASEAN) 역내 협력 파트너이자 직접 경쟁국으로 말련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내 제조·가공 기지로 부상하며 역내 투자·수출 경쟁 심화
 - (싱가포르) 금융·물류·디지털 경제 허브로서 역내에서 가장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보유
 - 글로벌 빅테크 및 데이터센터 투자의 중심지이며, 바이오·헬스케어·핀테크 등 첨단 서비스 분야에서 우위 확보
 - (베트남) 전자·섬유·신발 등 노동집약형 제조업 중심으로 외국인투자(FDI) 유치 활발, 한국·일본 기업의 생산 대체지로 부각
 - 글로벌 전자·스마트폰 밸류체인에서 조립·가공 거점으로 입지 강화
 - * 특히 삼성(8억 5,000만 달러), 하나마이크론(9억 3,000만 달러), Amkor(1억 6,000만 달러) 등 전후방 산업 규모가 강한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활발, 동남아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시장의 직접적인 경쟁자
 - (인니) 니켈·희토류 등 전략 광물을 기반으로 배터리·전기차 밸류체인 핵심지로 부상
 - 세계 4위 인구(약 2.8억 명)를 보유한 대규모 내수시장 역시 경쟁우위 요인
 - 단 규제 일관성과 인프라 제약이 리스크로 존재
 - (태국) 동부경제회랑(EEC) 정책을 기반으로 자동차·부품, 전자산업 중심의 고도화된 제조 생태계 보유
 -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생산 허브이자 친환경차(EV, HEV) 생산 클러스터로 성장

□ 말레이시아 對한국 수입규제 현황

- '25년 상반기 기준 한국 대상 수입규제는 전체 4건으로, '24년 하반기와 동일
 - 유형별 : 반덤핑 4건
 - 품목별 : 철강/금속 4건

구분	품목명	HS코드	유형	최종판정	비고
철강/ 금속	알루미늄/	7210.61.1100	반덤핑	'20.12.11. 〈최종〉 '23.6.26. 〈행정〉	• '20.3.13. 조사개시(청원인 : NS Bluescop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 : 중국, 한국, 베트남
	아연	7210.61.1200			• '20.12.11. 반덤핑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G동부스틸(9.98%), 기타(34.94%)
	도금/코팅된	7210.61.1900			• '20.12.11. 〈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기간 : '20.12.12.~'25.12.11.
	비합금강의	7210.61.9100			• '23.6.26. 행정재심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 Tan Phuoc Khanh Trading & Manufacturing Coil Steel JSC(TPK)의 덤팡 미소기준(De Minimis) 충족으로 반덤핑 규제종료
	평판 압연	7210.61.9900			• '23.6.26. 행정재심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 Tan Phuoc Khanh Trading & Manufacturing Coil Steel JSC(TPK)의 덤팡 미소기준(De Minimis) 충족으로 반덤핑 규제종료
	제품	7212.50.2300			• '23.6.26. 행정재심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 Tan Phuoc Khanh Trading & Manufacturing Coil Steel JSC(TPK)의 덤팡 미소기준(De Minimis) 충족으로 반덤핑 규제종료
		7212.50.2400			• '23.6.26. 행정재심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 Tan Phuoc Khanh Trading & Manufacturing Coil Steel JSC(TPK)의 덤팡 미소기준(De Minimis) 충족으로 반덤핑 규제종료
		7212.50.2900			• '23.6.26. 행정재심 최종판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기업 Tan Phuoc Khanh Trading & Manufacturing Coil Steel JSC(TPK)의 덤팡 미소기준(De Minimis) 충족으로 반덤핑 규제종료
철강/ 금속	코일시트	7219.31.0000	반덤핑	'18.2.7. 〈최종〉 '23.7.26. 〈일몰〉	• '17.5.15. 조사개시(청원인 : Bahru Stainl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국가 : 중국, 한국, 대만, 태국
	또는 기타	7219.32.0000			• '18.2.7. 〈일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대BNG제철(Nil), 현대제철(Nil), 포스코(4.44%), 기타(7.27%)
	형태의 냉연	7219.33.0000			
	스테인리스강	7219.34.0000			

구분	품목명	HS코드	유형	최종판정	비고
					* 부과기간 : '18.2.8.~'23.2.7. • '23.1.27. : 일몰재심 개시 - 일몰재심 기간 '23.2.8.에서 '23.7.26.로 연장 • '23.7.26: 일몰재심 최종판정 - 규제연장 결정 - 부과기간: '23.7.27.~'28.7.26. - 포스코(4.44%), 현대비엔지스틸과 현대제철에 대한 관세는 면제, 한국 기타 업체(7.27%) • '24.10.30. : 행정재심 개시 - 특정품목 관련, 말련내 유일한 생산업체의 생산중단이 배경 • '25.4.28. : 행정재심 최종판정 - '23년 일몰재심(원심) 유지 - 부과기간 : '25.4.28.~'28.7.26. - 관련문서 : P.U. (B) 176/2025
		7219.35.0000 7220.20.1000 7220.20.9000		<행정> '25.4.28.	
철강/ 금속	주석도금강판	7210.11.9000 7210.12.9000	반덤핑	'25.5.9.	• '24.8.14. 조사개시(청원인 : Perusahaan Sadur Timah) - 대상국가 : 한국, 중국, 일본, 인도 • '25.1.11 : 원심 예비판정 - 잠정 반덤핑관세 : 2.52~36.80% • '25.1.11 : 최종판정 - 최종 반덤핑관세: 4.48~35.43% - KG 동부스틸 : 21.6%, 기타 : 35.43% - 관련문서 : P.U. (B) 187
철강/ 금속	아연도금강판	7210.49 7212.30 7225.92/99 7226.99	반덤핑	<예비> '25.7.7.	• '25.2.6. : 조사개시(청원인 : CSC Steel Sdn Bhd) - 대상국가 : 중국, 한국, 베트남 - Media Statement 통해 예비판정 결과 발표, 7월 7일부터 임시관세 시행 - 잠정 반덤핑관세 : 3.86~57.90% - 현대제철(8.97%), POSCO(11.66%), KG 동부스틸(16.06%), 기타(31.47%) - 최종판정 예정일 : ~'25.11.3.

□ 통상·규제 이슈 및 전망

- (AP) 말련 수입허가제도(Approved Permit, AP)는 자국 산업 보호 및 외환 유출 방지 목적으로 정부 승인받은 특정 기업만 허가받은 제품 수입 가능
 - (특징) AP는 제한된 수입업체에만 배정되며, AP가 없는 경우 대상 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수입 면허 확보 필요
 - (대상) 자동차, 철강제품, 중장비, 화학제품(CWC : Chemical Weapons and on Their Destruction 1993) 및 기타 제품(바텍, 중고차 및 차량용 중고 배터리, 중고 브레이크 등)

- (TBT) '95년 이후 WTO에 통보된 말련의 기술장벽(TBT) 관련 통지문은 총 306건
 - 이중 한국의 TBT 모니터링 20대 타깃 품목군에 포함된 품목은 총 8건으로
 - ① 무선통신기기, ② 레일 및 철 구조물, ③ 철강판, ④ 섬유 및 화학기계, ⑤ 기타 석유제품, ⑥ 기구부품,
⑦ 정전기기, ⑧ 기타가정용전자기기 등 해당
- (통상) 한-말 FTA 공식 협상 타결('25년 10월)되며 우리 기업 진출 여건 개선
 - AKFTA와 RCEP 대비 288개 품목 추가 자유화 확보
 - * FTA 공식 발효 후 관세양허표에 따라 품목별 기대효과 추정 가능
- (수입규제 예상품목) 폭 1,300mm 이상의 냉연압연코일('25년 하반기 기준)
 - * 말련 정부 안내문 : <https://www.miti.gov.my/index.php/pages/view/8459>
 - (HS 코드) 7209.15.0000, 7209.16.9000, 7209.17.9000, 7209.18.9900
 - (타국현황) 말련은 현재 일본 및 중국산 냉간압연강판(Cold Rolled Coil, CRC)에 대해 반덤핑 조치 일몰재심을 진행 중
 - (재조사요청) 현지 철강업체 Mycron Steel, CRC Steel의 청원에 따라 한국 및 베트남산 제품에 대한 재조사 요청 접수
 - * 한국, 베트남의 경우 2023년 6월 27일 일몰재심을 통해 규제종료
 - 한국·베트남산 냉간압연코일은 '23.6.27.부로 반덤핑 관세가 종료되었으나,
 - 이후 '24년 8월 발표된 예비조사 문건(PUB_519)을 통해 POSCO Vietnam 등 특정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한 재규제 가능성 제기
 - (수입동향) 최근 3년간 총 수입은 감소세인 반면, 한국산 수입은 매년 증가
 -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31.3 → 42.0%로 급등해 시장 점유율 확대에 대한 우려 고조
 - (전망) 향후 한국산 제품에 대해 업체별 타깃 방식의 반덤핑 재개 가능성 존재
 - 관련 수출기업은 수출입 실적자료·원가자료 등에 대한 사전 준비와 함께, 말련 정부의 무역구제 전자 제출 시스템인 TRIMA 등록 검토 필요
 - 한-말 FTA 협상 타결되며 우리 철강제품의 對말 수출 관세와 제3국과 비차별대우가 명시, 수입규제 위험 감소했으나 지속 모니터링 필요

다. 산업

□ 주요 산업 개요

- (요약) 풍부한 천연자원과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한 제조업 위주 수출주도형 산업구조
 - 전기·전자, 석유가스, 팜유 등 전통적 주력산업이 여전한 성장동력 제공
 - 화학, 철강 등 중간재 제조와 서비스업 확장이 맞물려 자원·제조·서비스가 균형을 이루는 복합형 산업 생태계로 성장

- 전기·전자 산업

- (중요도) 말련 제조업의 약 40% 차지, GDP 7% 이상 차지하는 핵심 산업으로 반도체 조립, 테스트, 패키징하는 후공정이 핵심
- (호조요인)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정부의 첨단 반도체 중심의 제조업 육성정책으로 대규모 외국인 투자유입
- (부진요인) 주요 교역국인 미국의 19% 상호관세 부과로 가격경쟁력 및 미국의 반도체 관세 100% 부과 가능성 잔존해 장기적 수출경쟁력 약화 우려

- 석유·가스

- (중요도) GDP의 약 5%~8% 차지하는 전통적인 주력산업, 공기업 페트로나스를 중심으로 업스트림 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완성된 생태계 보유
 - * 페트로나스 : '74년 설립, 말련 내 모든 석유 및 가스 자원을 관리 운영하는 대표 에너지기업
- (호조요인)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 생산업체 수익성 개선, 동아시아 역내 경제 성장 및 산업화에 따른 에너지 수요 증가로 가스 생산 및 수출 증가
- (부진요인) 글로벌 탄소중립정책 강화로 석유가스 의존도 축소 요구 확대 추세

- 팜유 및 팜유기반 농업제품

- (중요도) '24년 팜유 생산 약 1,934만 톤으로 세계 팜유 생산 2위, 농업부문 내 대규모 고용 창출 및 수출 수익원
- (호조요인) EU의 말레이시아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MSPO) 승인('25년 9월)과 인도의 원식용유 수입관세 인하('25년 5월)로 수출 호조
- (부진요인) 외국인 노동자 EPF 2% 의무기여로 인한 인건비 상승 및 불리한 기상조건으로 수급 불균형 심화
 - * '25년 10월부터 고용주는 모든 외국인노동자의 사회보장세 EPF 분담금을 2% 의무 납부, 플랜테이션 업종은 저임금 외국인노동자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직접적인 타격

- 화학제품

- (중요도) 기초화학물질과 중간체 생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특수화학품, 전자화학품 등으로 산업 고도화 및 다변화 추세
- (호조요인) 중국, 미국, EU 등 주요수출국의 수요 증가, 정부의 산업 고도화를 위한 투자 및 생산지원책으로 성장세
- (부진요인) 글로벌 탄소 배출 규제 강화와 숙련된 인력 부족으로 고도화 제약, 필수 원자재와 에너지비용 급변으로 제조원가 상승 및 마진 압박 직면

- 철강

- (중요도) '24년 기준 수출량 940만 톤, 수입량은 810만 톤으로 '20년 이후 5년 연속 순수출 구조 유지
 - * 주요 수출품은 철근, 철선 등 1차 및 중간재이며 산업재용 고부가가치 평강은 수입에 의존
- (호조요인) 수출국 다변화(터키, 홍콩 등) 및 지속 가능한 철강산업 발전을 위한 로드맵 발표(철강산업 로드맵, '25년 10월)
- (부진요인) 과잉 설비로 생산 대비 국내 수요 불균형, 고급재 생산 역량 부족, 탈탄소화 압박

최근 말레이시아 주요 산업의 전체 수출 비중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8월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비중	수출액
전기·전자제품	40.7	84.57	38.7	85.36	43.3	99.32
석유 및 가스(LNG)	14.5	30.24	13.3	29.31	10.0	22.90
팜유 및 팜유기반 농업제품	4.9	10.16	5.0	11.01	5.2	11.88
기계 부품 장비	3.9	8.16	4.5	10.03	5.0	11.51
화학제품	5.0	10.44	4.9	10.91	4.2	9.73
철강	4.0	8.35	4.2	9.24	4.0	9.21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 서비스업

- (중요도) 금융·유통·교육·관광·물류 등 포함하며 전체 GDP의 55% 차지, '25. 2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1% 성장하며 타산업 대비 높은 성장을 기록
 - * '25. 2분기 기준 주요 산업별 성장을 : 제조업(3.7%), 농업(2.1%), 광업(Δ 5.2%) 등
- (호조요인) 생활 수준 상승으로 유통·도소매·금융업 고도화 및 팬데믹 이후 회복한 관광이 성장 견인
- (부진요인) 정부의 재정 건전성 회복책으로 소비심리 위축 우려, 전기·수도 등 인프라 제약 및 대외경제 불확실성

□ 현지 주요 산업 최근 동향

- (전기·전자) 생산기지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반도체 산업 고도화 추진
 - 반도체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24년 국가반도체전략(NSS) 발표
 - 첨단설계, 고급패키징, 웨이퍼 제조 등 고부가가치 반도체 기업과 인력 육성을 위해 투자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급
 - '25년 3월 기준 반도체 투자 140억 달러(630억 링깃) 확보, 이중 128억 달러(580억 링깃)이 해외 투자자로부터 유치
- (디지털화) 산업 전반의 디지털전환을 국정과제로 설정, 민관차원의 노력 지속
 - 국가 산업 4.0 정책('18년), MyDigital('21년), 신산업마스터플랜2030('23년)을 바탕으로 제조업·서비스업 등 산업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추진 지속
 - AI, 빅데이터, 사이버보안 등 특화 분야에 R&D와 인재지원, 펀딩 등 집중 배분
 - 스마트팜·스마트시티, 스마트물관리, 핀테크 등 기존 산업 분야의 디지털기술 적용 독려
 - '25년 8월 국가클라우드컴퓨팅정책(National Cloud Computing Policy) 발표, 공공·민간 전영역의 클라우드 기술 활용을 위해 정부·산업계·학계 협업
- (철강) 시장왜곡 방지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규제 및 생산설비확대 제한
 - '24년 상반기 철강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며 산업 보호 확대
 - '25. 1분기 철강 수입 증가로 중국·일본·한국·베트남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조사 및 판정
 - * '25.5.11.부터 '30.5.10.까지 5년간 철 또는 비합금강 평판압연제품과 주석도금강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중국(4.5~20.4%), 인도(27.9%), 일본(15.7~36.8%), 한국(21.6~35.4%)
 - '25년 10월 철강산업로드맵(Steel Industry Roadmap 2035) 발표, '26년부터 도입되는 탄소세 대응 및 과잉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고도화 지원
- (에너지) 석유에너지 의존도 낮추고 친환경에너지 전환
 - '35년까지 전력생산 용량의 4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목표
 - '23년 7월 발표된 국가에너지전환로드맵(NETR)을 바탕으로 CCUS 기술 도입 확대,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 프로젝트 등 추진
 - '26년 예산안에 전기 버스 1450대·전기 밴 300대 도입 및 아세안 에너지그리드 선도 계획 명시
 - ▶ 한편 '26년부터 완전조립형 전기차에 대한 소비세 면제가 폐지되어 말련 재무부와 산업부 간 대체 이니셔티브 모색 중('25년 10월 기준)

라. 투자

□ 투자 동향

- (투자환경) '25년 상반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가 주도적 디지털 전환 노력으로 안정적인 투자 흐름 지속
 - 투자프로젝트 3,011건, 투자액은 42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 증가
 - 서비스업은 국내투자, 제조업은 외국인투자 중심의 구조로 '24년 외국인투자가 제조업 전체 투자의 73.8% 차지(199억 달러)
 - '25년 상반기 디지털분야와 물류 등 서비스업의 외국인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하며 대폭 증가(123억 달러)

말레이시아 투자 동향

(단위: 건, 백만 달러)

구분	건수				국내투자		외국인 투자		
	2025년(上)	2024년(上)	2024연간	2025년(上)	2024년(上)	2024연간	2025년(上)	2024년(上)	2024연간
제조업	518	519	1,108	3,584	2,660	7,083	12,672	10,086	19,931
서비스업	2,476	2,696	6,499	15,832	14,520	39,214	12,350	5,489	18,129
1차 산업	17	37	75	419	1,004	1,484	354	201	342
전체	3,011	3,252	7,682	19,835	18,184	47,782	25,375	15,775	38,402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 (FDI동향) '24년 말년 FDI는 전년 대비 32.9% 증가한 112억 6,000만 달러 기록
 - '23년 글로벌경제둔화로 FDI 하락했으나, '24년 정부의 투자 촉진 정책 강화와 공급망 재편 수혜를 입으며 FDI 증가

말레이시아 FDI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금액	3,160	12,173	17,136	8,468	11,259

자료: UNCTAD

- '25년 상반기 FDI는 39억 달러로 추정, 제조업에서 일시적 순유출 발생
- (제조업) '25년 외국계 제조공장의 이익이 본국으로 송금되면서 국제수지 기준상 FDI 순유출로 집계
 - ▶ 한편 승인된 제조업 투자액(미래투자약정)은 전년 대비 13.8% 증가(약 159억 달러), 이 중 78%가 외국인투자
- (서비스업) AI 및 디지털 수요 증가로 서비스업 FDI유치 대폭 증가

말레이시아 2025년 상반기 FDI 유치 동향

(단위: 백만 달러)

분야	금액
제조업	-1,704
서비스업	5,324
기타	302
총계	3,921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 '25년 상반기 기준 FDI 누적액 상위 3개국은 전년과 동일하게 싱가포르, 홍콩, 미국 순이나 중국기업 진출 확대되며 7위에서 5위로 순위 상승
 - ▶ 한국은 '24년에 이어 '25년 상반기에도 상위 10위 유지

말레이시아 국별 FDI 누적액 현황(2025년 상반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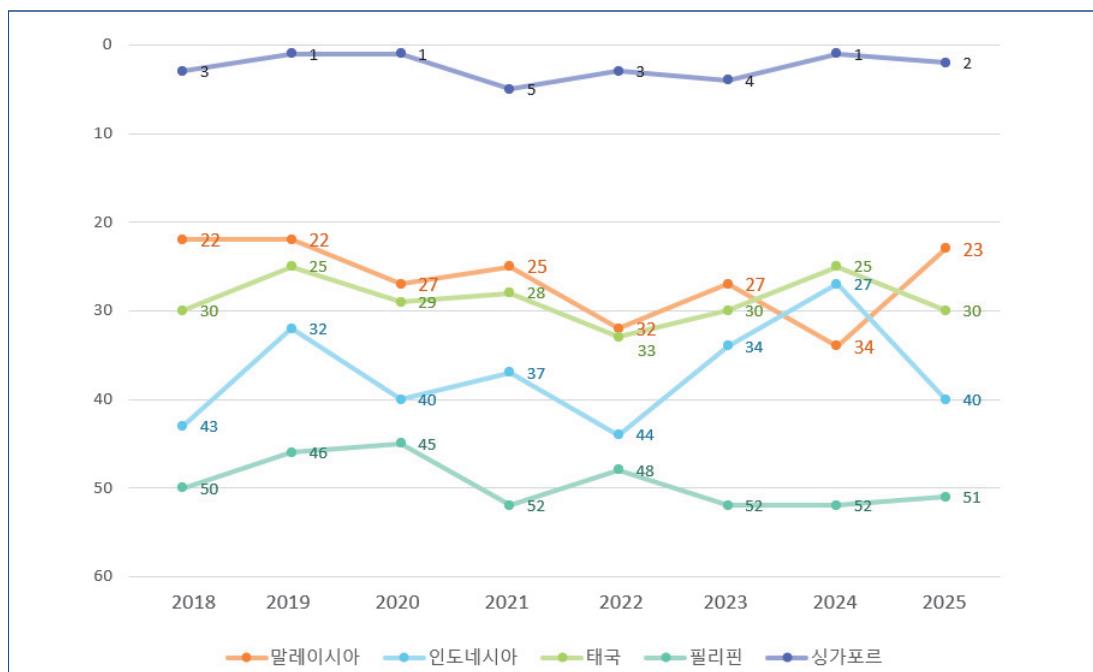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순위	국가	금액
1	싱가포르	59,368
2	홍콩	30,055
3	미국	24,406
4	일본	23,117
5	중국	8,653
6	영국	8,428
7	버진아일랜드	7,820
8	스위스	7,595
9	독일	7,034
10	대한민국	6,610
총계		228,760

자료: 말레이시아 통계청(DOSM)

- (글로벌경쟁력) IMD 세계경쟁력순위에서 '25년 69개국 중 23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1위 상승,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2위 기록
 - '24년 링깃 약세와 전기·전자 산업 수출 감소로 전년 대비 7위 하락
 - '25년 전기·전자 산업 수출 회복과 시장 다변화, 관광산업 회복 덕분에 국가 경쟁력 큰 폭으로 회복
 - IMD는 상승세 지속을 위해 R&D 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가속화, 규제 현대화 등 구조적 개혁 등 전년과 유사하게 조언

〈말레이시아 및 주요 아세안국가의 IMD 세계경쟁력순위〉



자료: IMD

▣ 현지 주요 투자 유치 산업

- 전기·전자
 - (개요) '24년 기준 총 승인 프로젝트 153건, 전체 승인투자액은 124억 달러(558억 링깃)
 - (주요산업) 이중 반도체 부문은 총 승인 프로젝트 46건, 승인투자액은 107억 달러(481억 링깃)로 전기·전자 투자액의 86% 이상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가 전체 전기·전자 투자액의 95.5%, 반도체부문 투자액의 96.8% 수준으로 절대적인 비중 차지
 - (호조요인) 고부가가치 반도체 중심의 확장·다각화가 주류를 이루며 정부의 산업육성정책(NSS, NIMP2030)과 세제인센티브가 차세대 제품군 투자 촉진

- 자동차
 - (개요) '24년 기준 총 승인 프로젝트 95건, 전체 승인투자액 31억 달러(139억 링깃)
 - (특징) 말련 자동차산업은 동남아 2위, 세계 23위 규모이며 전기차 전환 흐름으로 확장투자(61.2%)가 신규투자(38.8%)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전체의 80.6%(25억 달러) 수준
 - (호조요인) 정부의 적극적인 전기차 전환 노력으로 인프라 및 세제 인센티브와 함께 투자 기회 확대
- 제약
 - (개요) '24년 기준 총 승인 프로젝트 7건, 전체 승인투자액 8,000만 달러(3.4억 링깃)
 - (특징) 신산업마스터플랜의 핵심 성장부문으로 지정되며 제네릭 중심에서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시밀러, 원료의약품으로 생산 다각화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는 전체의 87.7% 수준
 - (호조요인) 정책적 산업 육성 노력 및 '25년 예산안에서 국내생산 필수의약품 정부구매 보장안이 반영되며 투자 안정화
- ICT
 - (개요) '24년 기준 총 승인 프로젝트 1,439건, 전체 승인투자액은 302억 달러(1,360억 링깃)
 - (산업) 크게 통신업과 디지털 분야로 구분되며 디지털 분야는 총 승인 프로젝트 1,015건, 승인투자액은 296억 달러(1,333억 링깃)로 ICT 투자액의 98% 이상
 - (외국인투자) 외국인투자 비중은 절반이 좀 안되는 47.5%(141억 달러) 수준
 - (호조요인) 지리적 이점과 안정적 인프라를 바탕으로 글로벌기업의 데이터센터, AI, 클라우드 인프라 등 디지털 인프라 투자유치 흐름 지속

□ 주요 경쟁국의 현지 투자 동향

- (싱가포르) '25년 상반기 對말 해외투자 1위국으로 총 103억 달러(433억 링깃) 투자
 - (배경) 높은 지리적·문화적 접근성, 저렴한 인건비와 풍부한 자원으로 싱가포르 독립 이후부터 생산 기지로 기능
 - (특징) '25년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공식 출범 후 싱가포르 주요 대기업과 금융 기관이 대규모 투자 확대하며 전년 동기 대비 투자 571% 증가

※ 조호르-싱가포르 특별경제구역(JS-SEZ) 개괄

- (역할) JS-SEZ는 9개의 플래그십 존(flagship zones)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글로벌 서비스, 스마트 물류, 정밀화학, 첨단제조, 관광, 석유화학, 금융 구역 등 특정 경제 역할을 담당
- (추진단계) '25.1.8. 양국 협정 비준 이후 조호르-싱가포르 RTS Link 프로젝트 등 동시 진행 중('26년 완공예정), Microsoft 등 대규모 기업들이 잇달아 입주 추진 관련 보도가 있으나 아직까지는 의향 단계 기업들이 대부분이며 제도적 구조강화 쪽으로 현재 포커싱이 맞춰져 있음
- (운영) IRDA, Invest Johor, MIDA가 통합된 Invest Malaysia Facilitation Centre Johor(IMFCJ)를 설립하여 투자 승인, 토지 문제, 외국인 취업비자 등 원스톱 지원을 제공
- (인센티브) 세제 인센티브에는 ▲ 지식근로자 대상 10년간 15% 개인소득세율 ▲ 자격 요건 충족 리노베 이션 비용 최대 60% 가속상각공제(ACA) ▲ AI·양자컴퓨팅·의료기기·항공우주 제조기업 대상 최대 15년간 5% 법인세율 ▲ 특정 부문 자본지출 100% 투자세 공제(ITA) ▲ 상업용 부동산 양도 시 최대 40% 인지세 감면 ▲ 최대 RM 100만 링깃 이벤트 후원 세금 공제 등이 포함됨
- (기타) 74개의 전용 산업단지가 즉시 투자 가능한 상태로 준비되어 있으며, JS-SEZ 마스터 블루프린트는 2025년 말 공개 예정

- (사례) OCBC은행 조호르주에 JS-SEZ 활성화를 위해 '24년부터 '25년 상반기 누적 24억 달러 투자, 주요 투자 분야는 부동산·석유가스·데이터센터 등

• 중국

- (개요) '25년 상반기 對말 해외투자 2위국으로 총 56억 달러(234억 링깃) 투자
- (배경) 일대일로 출범 이후 초대형 인프라·부동산 분야 본격 투자 진출, '20년대 이후 전기자동차, 디지털·통신 등 첨단산업 분야로 다각화
- (특징) '24년 수교 50주년 기념 양국 정상급 교류 확대되며 연간 64억 달러 투자하며 전체 외국인투자의 16% 차지, '25년에도 투자 확대 기조 지속
- (사례) 철강, 디지털·통신, 배터리,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고루 투자

중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 사례

(단위: 억 달러)

분야	기업명	시기	규모	내용
철강	Hebei Xinwu'an	'24년	18	제철소 건설
디지털·통신	GDS	'24년 10월	2.2	데이터센터 확장 투자
	ZTE	'24년 12월	0.44	혁신센터 2개소 설립
배터리	Eve Energy	'25년 3월	12	배터리셀공장 확장 투자
	Hunan Yuneng	'25년 8월	1.2	리튬배터리 양극재 생산기지 건설
자동차	Geely	'25년 2월	0.18	전기차 생산기지 투자 *지리가 최대 지분 보유한 말련 자동차기업 프로토니 투자
	BYD	'25년 8월	미공개	60만 헥타르 규모의 CKD 전기차 조립공장 건설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언론보도 종합

- 미국
 - (개요) '25년 상반기 對말 해외투자 3위국으로 총 24억 달러(104억 링깃) 투자
 - (배경) 미국계 제조업은 '70년대부터 말련을 동남아 생산기지로 삼았으며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말련 정부의 개방적 투자정책으로 안정적 투자 흐름 지속
 - (특징) '24년부터 반도체산업 고도화와 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등 첨단산업에서 글로벌대기업과 빅테크기업의 투자 확대 추세

미국계 글로벌기업의 對말레이시아 데이터센터 투자 사례

(단위: 억 달러)

기업명	시기	규모	내용	위치
구글	'24년 5월	20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리전	쿠알라룸푸르 엘미나 비즈니스파크
마이크로소프트	'24년 5월	22	클라우드 및 AI인프라 구축	쿠알라룸푸르 및 조호르주
AWS	'24년 8월	62	AWS 아태지역 리전 구축	슬랑오르주 사이버자야
오라클	'24년 11월	65	퍼블릭 클라우드 리전 구축	조호르주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언론보도 종합

- (사례) '24년 12월 마이크론 반도체 메모리칩 ATM시설 투자 발표(20억 달러), '25년 8월 말레이시아 항공그룹이 보잉의 신규 여객기 도입 계획 발표(190억 달러)

□ 한국의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현황

- (최근동향) '24년 전년대비 113.4% 증가한 7억 2,800만 달러 투자, '25년 상반기 기준 투자금액은 2억 6,300만 달러로 총 13개의 신규법인 진출
 - '21년 투자액 8억 3,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 기록 후 감소하다 '24년 반등

한국의 對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2Q.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투자금액	570	△260	341	△219	728	+387	263	△139
신규 법인 설립 건수	40	+13	32	△8	44	+8	13	△2

주1: 신규 법인 설립 건수는 현지법인·지점·지사 모두 포함

주2: 2025년 2분기 증감은 전년 동기 대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추이) '21년부터 '25년 상반기까지 한국의 對말련 투자진출 실적(신고기준)은 총 639건, 27억 3,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총 157개의 신규법인 진출

한국의 對 말레이시아 투자진출 동향(상세)

연도	신규법인수 (개사)	투자금액 (백만 달러)	신고건수 (건)	신고금액 (백만 달러)	송금횟수 (건)
2020년	31	139	129	172	150
2021년	27	830	117	908	130
2022년	40	570	150	657	196
2023년	32	342	166	342	216
2024년	45	728	149	692	190
2025년 상반기	13	263	57	390	120
합계	188	2,872	768	3,161	1,002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업종) 제조업 위주로 진출, '24년 기준 전체 투자액의 80.6%, '25년 상반기 84.7%를 차지
 - 제조업은 코로나19 및 글로벌공급망 재편으로 '21년 전년 대비 투자가 대폭 증가(투자액 7억 6,000만 달러, 22배 증가)했으나
 - 경기둔화와 재정건전성 정책으로 비용 부담이 증가하며 투자 하락세

한국 제조업의 對말레이시아 투자 진출 동향(상세)

연도	신규법인수 (개사)	투자금액 (백만 달러)	신고건수 (건)	신고금액 (백만 달러)
2020년	8	33	48	35
2021년	11	757	33	766
2022년	9	399	42	407
2023년	6	239	48	265
2024년	6	587	28	585
2025년 상반기	1	223	10	308
총합계	41	2,238	209	2,3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 우리 기업 투자 진출 사례

- (제조업) 삼성전자(가전/배터리), 롯데케미칼(석유화학), 한화큐셀(태양광), 포스코(철강), OCI(폴리실리콘) 등 현지에 상당 규모의 제조업 기지 구축
 - (대표사례) 삼성전자 소형가전제품 생산공장 운영('89년), 롯데케미칼 말련 석유화학 타이탄 인수하며 생산기지 구축('10년), 심텍 PCB 제2공장 증설('25년)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국내기업 C사, 호주기업과 손잡고 말레이시아 영구자석공장 설립 추진

- C사는 희토류 원료를 가공해 희토류 영구자석으로 제조하는 기업
 - 희토류 영구자석은 현재 사용 가능한 영구자석 중 가장 강한 자기장을 가져 풍력터빈과 MRI스캐너와 같이 높은 전력이 필요한 장치에 사용
- '25년 8월 호주 희토류 생산기업과 협력해 말련 쿠안탄에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MOU 체결
 - 라이너스는 세계 최대 희토류 생산업체 중 하나로 쿠안탄에 대형 희토류 정제시설 보유
 - 공장 생산 규모는 연간 3천 톤이며 합작 공장부지 선정과 원료 공급 방안 협의 중
- (시사점) 말련은 희토류 매장량 약 1,610만 톤으로 추정되는 자원 부국으로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원료·시장 접근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효과적 진출 형태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국내기업 D사, 동남아 자동차시장 공략 위해 CKD 공장 설립

- '24년 12월 D사는 현지 파트너사와 협력해 말레이시아 북서부 캐다주 쿨림 지역에 한화 약 6,800억 원 규모의 CKD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발표
- 향후 5년 간 7개 모델 생산 계획이며 생산 차량의 30%는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주변국으로 수출
 - 초기 생산 모델은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며 전기차용 배터리조립공장도 설립 예정
 - 기준에 현지 판매사 통해 한국산 차량을 수입·판매했으나 '25년 법인설립하며 직접판매
- '25년 상반기 SUV 2종과 MPV 1종을 신규출시하며 3분기부터 직접 생산 시작
- (시사점) 말련은 아세안 2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일본차의 점유율이 높으나, 현지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말련 시장뿐 아니라 인니와 베트남 등 동남아국가 시장 확대 도모

- (건설업) 주요 랜드마크 빌딩과 전시장, 교량, 발전소, 플랜트 분야에서 국내기업 진출 활발
 - (대표사례) 삼성물산-극동건설 페트로나스 타워2동 완공('99년), 대우건설 MITEC 전시장 완공 ('17년)
- (도소매·유통) 코웨이와 쿠쿠, SK매직, 청호나이스 등 우리 기업이 말련 정수기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CU와 이마트24 등 편의점 진출도 활발



주요 투자 진출 사례 : E사, 할랄인증과 활발한 SNS로 현지 소비자 공략

- E사는 2021년 현지 유통망과 협업해 말련에 진출, 2025년 현재 수도권에 약 147개 점포를 운영 중
 - 즉석 김밥, 삼각김밥 등 한국에서 인기 있는 식품은 물론 현지 수요를 반영한 메뉴를 출시해 현지 무슬림 소비자에게 인기 증가
 - E사의 현지 PB상품은 모두 할랄인증을 보유해 무슬림 소비자 대상 신뢰도 확보
 - 인스타그램 같은 SNS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과 소통으로 제품을 넘어 한국 문화까지 전파
 - (시사점) 무슬림계의 비중이 높은 저가형 유통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현지화
-
- (F&B) 닭고기를 선호하는 문화권으로 교촌, 비비큐 등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와 파리바게트, 달콤커피, 이디야 등 커피·디저트 프랜차이즈 진출

□ 현지 투자 진출 시 진입장벽

- (인사·노무) 자국민 우대정책 강화 추세로 비자 발급 및 노무 분쟁 주의
 - (채용) 자국민 채용을 우선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절차와 조건이 까다롭고 부미푸트라 우대정책으로 일부 업종은 말레이계 직원 의무 채용 필수
 - * 고숙련 기술직 외국인 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 있으나, 기본적으로 현지인이 대체할 수 있는 업종은 자국민 채용이 우선
 - (노무분쟁)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리가 강하게 보장되어 노무 분쟁 발생 시 징계 및 해고 절차가 까다로운 편으로 인사·노무 관리가 중요
 - (비용부담) '22년에 이어 '25년 최저임금 인상(1,500링깃/333달러 → 1,700링깃/378달러)
 - '25년 10월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EPF(근로자적립기금) 고용주 2% 납부 의무화
 - '24년부터 노동비자(EP) 신청 및 갱신 비용 인상 등 비용 상승 추세
- (산업규제) 말련 정부는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나 일부 산업에서는 현지 기업과의 합작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 보유 필요
 - (통신) 응용서비스제공자(ASP) 외국인 100% 지분 허용
 - 네트워크 시설 사업자 및 서비스 네트워크 사업자 외국인 지분 70% 제한
 - (석유·가스) 석유개발법1974(Petroleum Development Act)에 따라 국영기업 페트로나스가 산업 통제
 - 외국 기업은 현지 합작·현지 법인·대리인계약을 통해 업스트림(탐사·생산) 활동 참여 가능, 다운스트림 (정유·판매) 활동은 제한 없이 가능
 - (금융서비스) 국내 이슬람은행, 투자은행, 보험 및 이슬람보험 업체의 외국인지분 70% 제한
 - 보험회사는 업계 구조조정·합리화에 기여하는 경우 개별심사 후 70% 초과지분 승인 가능
 - 외국계 은행은 기존 은행 1.5km 이내에 신규 지점 개설 불가
 - (유통) 직판 및 프랜차이즈 외국인 지분 30% 제한
 - 백화점·슈퍼마켓·쇼핑몰은 매장 진열 공간의 30% 이상을 말련 중소기업 제품에 의무 할당

2. 유망 산업

가. 반도체 및 전기전자

□ 현지 반도체 산업 개요

- '70년대 인텔이 페낭에 후공정(조립·테스트) 공장을 설립한 이래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본격 편입
 - 현재 전 세계 후공정 시장의 약 13%를 차지하는 전통적인 후공정 강국
 - 동남아 후공정 비중(세계 약 20%) 가운데 가장 큰 점유율을 보유
 - 최근 들어 미·중간 첨단분야 기술 경쟁 심화 속 반도체 중립지대로 부상
 - 인텔, 마이크론 등 글로벌기업 투자유치에 성공하면서 오프쇼어링 기지로 각광
 - 미·중 간의 기술우위 확보 경쟁 속 미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기술의 중국 공급 제한 조치 → 중국 내 생산시설 보유업체 사업 차질 → 글로벌 제조기업을 고객사로 보유한 후공정 업체의 말련 진출 확대
- * 중국 반도체 기업은 페낭을 중심으로 진출, 규모는 '22년 16개사 → '24년 55개사로 추정(KSIA)

□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 (시장규모) 말련 반도체 협회(MSIA)에 따르면 '25년 말련 반도체 시장규모는 약 118억 달러 규모로 추정
 - AI·전기차·데이터센터 수요 확대에 따라 '26년에도 안정적인 성장 이어질 전망
 - (주력수출품목) 반도체(전기·전자포함)는 말련 최대 수출 품목이며 전 세계 6위 수출국(전 세계 점유율 7%)으로 국가 핵심 기간산업으로 자리매김
 - (참고) 주요 품목별 수출 점유율은 ①반도체 및 전기·전자(약 39.9%), ②석유제품(약 8.4%), ③화학제품(4.9%)로 반도체의 비중이 압도적
- *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MITI),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MIDA) 자료 인용
- (고도화) 정부 주도하에 전통적인 후공정 허브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최근에는 산업 고도화를 통해 가치사슬 상위 단계 진입을 모색
 - '72년 반얀 레파스(Banyan Lepas, 페낭주), '96년 쿨림(Kulim, 케다주) 경제자유구역(FTZ) 지정 및 수출입 관세 면제, 세제 혜택, 노조 관리 등 제공
 - 신산업 마스터플랜(NIMP 2030)과 국가반도체전략(NSS)을 양대 축으로, 후공정 중심에서 웨이퍼·IC 설계 등 가치사슬 상위단계 도약 추진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주력분야) 인텔, 마이크론 등 미국계 글로벌기업에 의한 OSAT(반도체 조립·패키징·테스트 아웃소싱)가 가장 큰 시장을 형성
 - 비트록스, 이나리 등 로컬사업자는 ATE(자동테스트장비) 분야에서 두각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주요 글로벌기업 동향

기업명(프로젝트)	기업 최신 동향
 (OSAT)	인텔(Intel Tech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년대 말년 페낭에 진출, 말련을 글로벌 후공정 거점으로 활용 • '21년 발표한 70억 달러 규모 투자를 통해 미국 외 최초의 첨단 3D 패키징 공장 건설 중(페낭) • 말련 내 종업원 약 1만 3,000명 이상 고용, 현지 최대 고용 기업 중 하나
 (제조)	인피니온(Infineon Tehc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레이시아 쿨림, 멜라카(Melaka)에 대규모 생산 거점 보유 • '23년 약 77억 달러 투자 발표, 쿨림에 세계 최대 규모의 200mm SiC 전력 반도체 생산공장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거점을 통해 전기차(EV), 재생에너지,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화 응용 수요 대응 • 말련 정부 및 투자개발청(MIDA)와 협력하여 현지 벤더 개발 프로그램 추진
 (OSAT)	마이크론(Micron Techonolog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계 메모리 반도체 기업으로 페낭 무아르(Muar)에 조립·테스트 및 SSD 관련 거점 운영 • '23년 말련 후공정 팝 증설에 10억 달러 투자 발표, 페낭 기지를 글로벌 SSD 테스트·R&D 허브로 육성 중 • 국내기업 심텍(Simmtech) 등과 협력해 패키지 기판·부품 현지화 및 기술 협업 확대
 (OSAT)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계 아날로그 반도체 전문기업으로 멜라카, 클랑밸리 지역에 생산 거점 운영 • '23년 27억 달러 투자 발표, 2개의 신규 조립 및 테스트 공장 증설 중이며 '25년 가동 • 말련은 TI의 아시아 최대 OSAT 허브 중 하나로, 차량용·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 공급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

자료: 한국반도체협회(KSIA),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 각 회사 홈페이지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주요 로컬기업 동향(ATE, OSAT)

기업명(프로젝트)	기업 최신 동향
 (ATE)	<p>비트록스(Vitrox Corporation Berh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련 페낭 기반 ATE전문 기업 • X-Ray, AOI, 머신비전 검사장비 글로벌 공급
 (OSAT)	<p>이나리(Inari Amertron Berha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 설립 말련 대표 로컬 OSAT 기업 - 말련, 필리핀, 중국 등 '25년 기준 11개 생산 거점 보유 • 주력은 RF 테스트·조립(Assembly & Test), 광전자소자(Optronics), MEMS 관련 반도체 패키징 서비스 • Apple, Broadcom 등 글로벌 팝리스/IDM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
 (OSAT)	<p>유니샘(Unisem Grou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락주 이포 소재 말레이시아 최대 독립 OSAT 기업 중 하나 • 웨이퍼 범핑·조립·테스트 등 첨단 패키징 기술 보유하여 다양한 반도체 패키지 제품 생산 • 최근 Gopeng 신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규모, 고부가가치 패키징 역량 두배 확대

자료: 한국반도체협회(KSIA),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 각회사 홈페이지

- (최근 동향) IC 설계·디자인 분야는 산업 태동기로 첨단산업 전환과 인재 육성 정책에 힘입어 말련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분야로 평가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주요 로컬기업 동향(IC 디자인)

기업명(프로젝트)	기업 최신 동향
 (IC Design)	<p>올스타(Oppstar Technolog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련 페낭 기반 IC 설계 회사 • IP Turnkey 설계부터 제품 전체(Full-Product) 설계까지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파운드리 공정 기술(28~3nm 노드) 대응 • 최근 Inventec와 MoU를 체결하여 차세대 AI 칩 공동 개발 추진('25년)
 (IC Design)	<p>스카이칩(SkyeChip Sdn Bh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에 설립된 말레이시아 페낭 기반 반도체칩 설계 회사 • 인공지능(AI)과 고성능 컴퓨팅에 특화된 IP 및 ASIC 솔루션 제공 • 말련 최초 자체 엣지 AI 프로세서(Edge AI Processor) 'Mars1000'을 발표

자료: 한국반도체협회(KSIA), 말레이시아 반도체협회(MSIA), 각회사 홈페이지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후공정 고도화) 전통적 후공정 강국으로 글로벌기업 중심으로 산업 고도화, 로컬기업으로 기술 이전되며 역량 강화
 - (고도화수요) 첨단 패키징(3D, SiP, Fan-Out), 자동화 장비, 검사 장비 분야에서 첨단 팩토리 조성 관련 한국 기업의 기술·장비 협력 수요 확대 전망
 - (전력반도체협력) 전력반도체 기업의 투자발표 이어지며 전기차·배터리와 연계한 전력반도체 패키징·소재·테스트 장비 분야에서 한국 기업 협력 수요 존재
- (소부장 현지화) 말련 정부는 국가전략(NSS)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내재화 추진
 - 기판, 포토레지스트 등 한국 강점 소재 및 부품에 대한 협력 기회 다대
- (전공정 공급망 진입) 옵스타, 스카이칩 등 로컬 설계 기업이 성장 중이나 글로벌 파운드리 접근성·EDA/IP 인프라가 제한적
 - 한국의 반도체 설계 IP, 검증 툴, 파운드리 협업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 협력 수요 발굴 가능

- 말레이시아 반도체 산업은 전통적인 후공정 강점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NSS·NIMP 2030을 축으로 가치사슬 상위(웨이퍼, IC 설계, 첨단 패키징)로의 도약을 적극 추진
- 후공정 중심에서 첨단분야로 확장되는 과도기적 전환 단계에 있으며, 이는 우리 기업에게 기술협력, 소부장 현지화, 신흥수요 대응 등 다양한 진입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나. 할랄·소비재

□ 말련 할랄 소비재 산업 개요

- (세계시장규모) 글로벌 할랄산업 시장규모는 '23년 2조 43억 달러에서 '28년 3조 36억 달러로 연평균 (CAGR) 5.3% 성장 전망
 - (할랄특징) 이슬람 율법에서 허용된 것, 허락한 것을 의미하며 위생적이고 윤리적인 환경을 강조하고 돼지나 알코올 등 일부 성분 금지
 - (주요산업) 할랄인증은 직접 신체에 섭취하는 제품일수록 중요도가 높아져 식음료업('23년 기준 1조 43억 달러)이 가장 발달, 그 외 관광·화장품·의약품 등
- (말련시장규모) '30년까지 식음료 분야 852억 달러, 화장품 및 개인용품 분야는 105억 달러, 의약 및 제약 분야는 59억 달러로 시장 성장 전망
 - * 시장규모는 추정치로 무슬림 인구의 제품군 소비형태를 바탕으로 할랄 시장규모 추정
 - (주요품목) ①식음료, ②화장품·개인용품, ③의약·제약품의 3대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타 분야로 금융·서비스 등도 분포

- (수출입동향) 글로벌 이슬람 경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 인도, 브라질 등 비이슬람권 글로벌 생산 기지가 수출, 이슬람권 국가가 수입하는 구조로 무역수지 불균형
 - * 할랄 인증은 HS Code와 연계되지 않아 정확한 통계 집계는 어려워 경향성으로만 참고
 - (수입국) 말련의 경우 할랄 식음료는 중국·태국·인도네시아, 할랄 화장품은 인도네시아, 할랄 의약품은 호주 등에서 수입
 - (수입의존도) 일반적으로 가공식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편이나, 할랄 식음료는 자국 생산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

□ 말련 할랄 소비재 세부 산업별 특징

- (식품) 할랄 산업이 가장 발달한 분야로 일부 동물성 식품은 할랄 인증 의무
 - (의무) 육류나 동물성 성분이 들어간 제품은 수입·유통·판매 시 인증 필수
 - (특징) 라면 같은 저가·대량생산이 되는 필수재 성격의 제품일수록 무슬림 인구 소비가 많아 할랄 인증이 비필수 제품도 자발적으로 인증 취득
 - (경향성) 로컬기업은 제품 성분 무관하게 할랄 인증 보유 비율이 높은 편
 - ▶ 고가의 수입산은 외국인·비무슬림계를 메인 타겟으로 하여 할랄 인증 미보유 제품도 다수 분포

말레이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 품목 세부 목록

구분	내용
육류 및 육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쇠고기, 양고기 등의 신선육 • 쇠고기, 양고기로 만든 소시지, 육포 등 가공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고기의 수입 전 도축 및 가공 과정(인증서는 발급 불가)
가금류 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닭, 오리 등의 신선육 • 닭, 오리 등으로 만든 소시지 등 가공식품
유제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유, 분유, 치즈, 버터, 아이스크림, 요거트 등 모든 유제품
계란 및 난가공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란, 건조난백, 난분 등 • 계란 등이 포함된 가공식품
동물 유래 첨가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젤라틴, 동물성 유지, 쇼트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돼지 유래 성분 포함 시 인증 발급 불가

자료: 말레이시아 수의국

- (화장품) 할랄 인증 화장품 시장 태동기로 성분의 안전성으로 마케팅 대체
 - (가격대) 할랄 화장품은 대부분 무슬림계 시장을 타깃해 중저가에 형성
 - (유통망) 왓슨스(Watsons)나 가디언(Guardian) 같은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중심이나 쇼피, 라자다, 틱톡샵 같은 온라인 쇼핑 판매가 성장세

- (인증) 화장품은 할랄인증이 필수가 아니며 소비자 인식도 낮아 전체 시장에서 할랄 화장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 미만으로 추정
- (비고) 로컬브랜드는 할랄인증 대신 비건인증이나 동물성 실험 미시행 등 성분의 안전성과 윤리적 제조 환경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
- (건강기능식품) 필수 인증 품목은 아니나 비타민C, 오메가3 같은 대중적인 제품일수록 할랄인증 보유 비율 증가
 - (특징) 건강 및 생명에 직결되는 제품은 할랄이 아니라도 섭취를 허용하는 종교적 예외 조항이 있어 직접 섭취제품임에도 할랄인증 보유 비율 낮은 편
 - (시장경쟁) 시장 지배적인 브랜드는 없어 경쟁 치열
 - * 영양제 시장 점유율 상위 브랜드는 뉴트리라이트(7.0%), 브랜즈(5.5%), 유사나(4.8%)이며 상위 3개 브랜드의 점유율 합이 20% 미만(자료: 유로모니터)
 - 비이슬람권 글로벌기업은 할랄인증 미보유, 로컬기업은 주로 할랄인증 보유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식품) 트렌드 주도형 소비가 아닌 개인의 기호 중심으로 구매가 이뤄지는 특징으로 완만하고 점진적인 성장세 유지하는 구조

말레이시아 할랄 식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코카콜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세기 초 말련 진출, 연간 약 2억 8,000만 달러(13억 링깃) 규모의 자동화 제조시설 보유 • 말련 JAKIM 할랄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내수, 싱가포르, 브루나이 시장으로 진출 • 말련에서 10개 이상의 브랜드, 80개 이상의 제품이 판매되며 할랄인증을 바탕으로 꾸준히 소비자 신뢰도 확보
 QL 푸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년 설립된 말련 대표 할랄 육류·가금류 가공 전문 기업 • 원자재 비용 안정화, 정부의 보조금 및 동남아 인근지 무슬림 인구 증가로 '24년 매출 전년 대비 6.6% 성장 • 프리미엄 육류 제품, 냉동식품, 즉석 가공육 등 할랄 육류 제품군 확대
 삼양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 인기를 끄는 불닭볶음면은 말련 현지에서 할랄인증을 받아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시장에서 불닭볶음면 오믈렛을 판매하는 등 대중적 인기 식품으로 자리매김 • 삼양식품은 불닭볶음면의 인기에 힘입어 국물라면 시장을 공략하는 맵(MEP) 라면 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입맛을 고려한 그릴드 갈릭 쉬림프, 블랙페퍼 치킨 등 맛으로 출시되었으며 현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단독 입점해 대중 시장 공략

자료: 말레이시아 투자개발청, 각 기업 홈페이지

- (화장품) 말련과 인니 브랜드 중심으로 중저가형 할랄 화장품 시장 주도하며 비건·클린뷰티 분야에서는 글로벌 브랜드도 참여 활발

말레이시아 할랄 화장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와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도네시아 최초로 할랄인증을 받은 중저가형 화장품 브랜드 기초 스킨케어·색조·바디·헤어 등 다양한 화장품 제품군에서 할랄인증 제품 출시 왓슨스, 가디언 같은 주요 드럭스토어에 입점, 무슬림 소비자들에게 높은 인기
 실키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련 유명 가수 시티 누르할리자가 설립한 중저가형 브랜드 할랄이거나 할랄에 준하는 제품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렴한 가격대와 트렌디한 감성으로 인기
 엘솔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화장품 회사 레이디케이가 '24년에 출시한 할랄 화장품 브랜드 한국콜마 OEM 제품으로 할랄·비건 인증을 받은 기초스킨케어 제품으로 구성 한국 화장품의 우수한 기술력과 할랄인증으로 소비자 신뢰도 확보

자료: 왓슨스, 가디언, 각 기업 홈페이지 등

말레이시아 비건·클린 뷰티 화장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믹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의 클린뷰티 및 미니멀 스킨케어 브랜드로 기초화장품 중심 현지 AEON 몰, 파빌리온 등 대형 유통채널과 협업해 온·오프라인 판매 전제품 크루얼티 프리, 친환경 패키징 등 비건, 클린 뷰티로 마케팅
 심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국의 민감성 피부 전문 스킨케어 브랜드로 안전한 성분과 자연주의 강조 현지 주요 드럭스토어에 중저가대로 입점되어 있으며 전제품 PETA(동물성 실험 반대) 인증 보유 저렴한 가격과 성분의 안전성, 윤리적 소비 트렌드로 꾸준한 인기

자료: 왓슨스, 가디언, 각 기업 홈페이지 등

- (건강기능식품) 로컬 Flavettes, Champs 등 브랜드는 할랄인증 기보유, 글로벌 브랜드의 할랄인증 획득이 증가하는 추세

말레이시아 건강기능식품 산업 주요 기업 동향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BLACKMORES® 블랙모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호주 대표 영양제 브랜드로 현지 앗순스, 가디언 등 주요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25년 2월 호주에서 만들어진 완제품 브랜드 최초로 말련 JAKIM 할랄인증 획득
K KINOHIMITSU 키노히미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만 바이오 코스메틱 기업 키노바이오텍 산하 건강·미용 기능성 음료 및 식품 브랜드 콜라겐 음료, 디톡스 주스 등을 판매하며 말레이시아 및 동남아시아 인근에 진출 말레이시아 콜라겐음료의 선두주자로 말련 JAKIM 할랄인증 보유

자료: BERNAMA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전망) 인구학적·정책적 노력으로 종교적 소비성향이 강화되면서 할랄인증은 다양한 산업군에서 더욱 보편화 예상
 - (인구) 다산을 장려하는 종교적 영향으로 무슬림 인구는 지속 증가되는 반면 타문화권은 해외 이주 증가 및 저출산 기조로 무슬림 인구 비중 증가 추세
 - * 무슬림 인구비중은 '50년대 과반 수준에서 '25년 70%수준까지 확대
 - (종교적연대) 글로벌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갈등으로 이슬람권의 문화적 연대가 강조되며 소비를 통한 현대적 신앙을 실천하는 트렌드 확산
 - (정책) 국가 차원에서 할랄 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아 JAKIM 할랄인증의 글로벌 리더십 확보와 할랄기업 육성 지원
- (기회요인) 한국소비재의 품질에 대한 신뢰도와 함께 할랄인증으로 무슬림 소비자에게 신뢰도 확보
 - (전략) 말련은 한국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와 KHA(한국할랄인증원)의 할랄인증을 교차 인정해 한국에서 인증받아 비용 절감
 - * 말련 JAKIM 할랄인증을 받는 경우 인증수수료 2,222달러(1만 링깃) 외에 심사인 체류비용 일체 기업 부담
 - (유의사항) 할랄인증은 일반적으로 제품당 발급받으므로 기업의 예산과 시장 진출 상황에 따라 전략적 인증 발급 추천
 - * 화장품이나 비설탕·구강비접촉 생활소비재는 단기적으로 시장 진입을 위해 할랄인증은 불필요하나, 장기적으로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경우에 추천

다. 에너지·플랜트

□ 말레이시아 에너지 산업 개요

- (대내중요도) 말련 에너지 산업은 전체 GDP의 20%, 그 중 석유·가스·서비스·장비업(OGSE)은 전체 GDP의 5~8%를 차지
 - 전통적 국가 핵심산업으로 국가 재정 및 산업 성장의 중추적 역할 담당
- (대외중요도) ASEAN 지역의 주요 에너지 허브로서, 석유·가스 및 관련 산업의 공급망 다변화에 중요한 시장으로 여겨짐
 - * 특히, 말련 메이저 석유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에 따라 프로젝트 확대 전망
- (정책)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기반, 탈탄소 등 에너지전환 정책 활발히 추진
 - 현지 석유·가스 산업은 기존 자원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 LNG·CCUS·수소 등으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에너지전환 과정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재정의 추세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동향

- (국영기업주도) 말련 석유·가스 분야는 국영 최대 석유기업 페트로나스(PETRONAS, 연방정부 소유), 페트로스(PETROS, 사라왁주정부 소유)가 주도로 발전
 - 탐사 생산, 정제 및 가스 처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의 기획 및 운영 총괄
- (산업구조) 국영기업들은 대부분의 프로젝트를 핵심 계약 벤더들에게 위임
 - 1·2차 벤더들은 국영기업과 최종 위임 계약을 맺고 해양 시추, 정유, 플랜트 건설 및 유지보수 등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 또한 기자재 및 부품 조달에서 중요한 역할 담당
 - 페트로나스와 직접적인 협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핵심 벤더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프로젝트에 간접 참여 및 현지 진출 기회 확보 가능
- (동향) 에너지 및 자원 분포가 높은 東말련을 중심으로 권한 개편 움직임
 - 기존에는 페트로나스가 독점적으로 사업권을 행사
 - 최근 사라왁 주정부는 페트로스를 통해 천연가스와 석유 자원의 채굴·유통 및 관리 권한을 강화하며 지역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
 - 이에 LNG 설비, 천연가스 기반 인프라 등 분야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 기회가 새로이 창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말레이시아 석유·가스·플랜트 분야 주요 기업

기업명	기업 최신 동향
 페트로나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년 설립, 말련 국영 석유·가스 기업(연방 정부 지분 100%) • 주요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스트림 :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 미드스트림 : LNG 액화·저장, 원유·가스 수송 인프라 - 다운스트림 : 재생에너지·수소·CCUS, EV 충전, 친환경 연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년 재생에너지 관련 자회사(Gentari 설립) • (규모) 말련 최대 기업, Fortune 500 내 약 140위권('24년) •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50년 탄소중립(Net Zero Carbon Emissions by 2050, NZCE 2050) 선언 - 동남아 최대 CCS 프로젝트(Kasawari CCS, Sarawak) 추진 - 사라왁주 중심으로 그린·블루 수소 프로젝트 확대 - 글로벌 파트너십(한국, 일본, EU 등) 기반으로 에너지 전환 신사업 강화
 페트로스 (Petroleum Sarawak)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년 설립, 말련 주정부 석유·가스 기업(사라왁 주 정부 지분 100%) • 주요사업영역 : 국영기업 페트로나스와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스트림 : 탐사 및 생산 - 미드스트림 : 가스 유통 및 공급(Gas Distribution) - 다운스트림 : 사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예: 인프라, 가스 집계(aggregator) 역할) • (규모) 매출액 약 181억 달러(781억 링깃)('24년) •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라왁 주 전체 가스 유통 독점 권한(Sole gas distributor) 획득 - 주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 권리, 채취 및 라이선스 관련 법적·행정적 조치 강화 중
 엠에이치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말련의 종공업 및 조선 기반의 EPC 기업(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 페트로나스, 페트로스, 쉘, 엑손모빌 등 로컬 및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의 핵심 벤더사 • 주요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양 플랫폼, 해양 구조물 제작 및 선박 수리 등 - 해양·육상 엔지니어링 사업 •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쉘, 페트로나스 등과 같은 업체의 해상 가스 프로젝트 수행(EP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smari-Marjoram 가스 프로젝트 등
 q벤트리스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Kencana Petroleum과 SapuraCrest Petroleum 합병으로 출범한 말련 대표 종합 에너지·EPC 기업 • 페트로나스, 페트로스, 쉘, 엑손모빌 등 로컬 및 글로벌 메이저 석유·가스 기업들의 핵심 벤더사 • 주요사업영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엔지니어링&건설(E&C) - 해양 플랫폼, 파이프라인, 서브시스템 등 - 드릴링 - 해상 시추선(자체 Drilling Rig Fleet 9기 이상 보유) - 탐사&생산(E&P) - 석유·가스 탐사 및 생산 자산 운영 • 최근동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페트로나스 Carigali 해상 플랫폼 및 파이프라인 설치 프로젝트

자료: 말레이시아 석유가스서비스 협회(MOGSC), 각 회사 홈페이지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탐사·생산) 말련은 심해 및 해상 시추 비중이 높아 첨단 시추 장비, 해양 구조물 안전 기술 수요 多
 - 우리 기업은 해양 시추선·트릴십, FPSO 기술, 해양 구조물 엔지니어링 협력 가능
 - * FPSO(Floating Production Storage & Offloading) :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 설비
- (해양플랜트·조선) 페트로나스 및 현지 EPC(Sapura Energy 등)가 FPSO·LNG 플랜트·FSRU 프로젝트를 주도
 - * FSRU(Floating Storage & Regasification Units) :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설비
 - 한국 조선·플랜트 기업과의 하도급·기자재 공급 협력 수요 존재
 - 특히 고부가 선박(탱커, LNG 운반선), 모듈 제작, 용접·배관·밸브 기자재 납품 유망
- (석유화학·정유) 조호르주 중심으로 석유화학·정유 프로젝트 진행
 - 한국 석유화학·엔지니어링 기업의 EPC 참여로 촉매·특수화학소재 납품 기회
 - 한-말 FTA로 석유화학제품 및 정밀화학제품 관세 철폐되어 가격경쟁력 제고
- (기자재) 주요 플랜트, 석유화학 파이프라인 등에 밸브, 펌프, 압축기, 센서 및 제어시스템 등 정밀 기자재 공급 협력
- (신산업분야) 페트로나스 탄소중립 전략(NZCE 2050)에 따른 CCS/CCUS, 수소,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 한국 기업의 CCUS 저장기술, 수소 생산 장비,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 발굴 가능
 - * 한국 기업의 탈탄소 및 수소 산업 개발 사업이 맞물려 상호 시너지 창출



한국 – 말레이시아 CCS 협력 프로젝트 사례(세퍼드 CCS 프로젝트)

- (개요) 한국 기업들과 말레이시아가 협력하여 추진 중인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사업으로 한국에서 이산화탄소를 포집 → 허브 집합 → 말련 사라왁 지역 등에 저장하는 벤류체인 전구간 구축 목표
- (협력기업) SK에너지·SK아스온·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롯데케미칼·페트로나스
 - 이후 한국석유공사(KNOC), 한화, 에어리퀴드 코리아, 쉘 등이 새 파트너로 합류
- (추진현황)
 - MOU 체결 및 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며, 예비설계(Pre-FEED) 단계 직전 상태 또는 진입 중이라는 언론 보도
 - 콘셉트/타당성 조사 진행 중이며, 말련 내부 저장소 후보지 탐색, 한국 내 허브 후보지 탐색 등 진행 중

- 우리 기업은 말레이시아 에너지 분야 협력 진출 시 단기적으로는 밸브·펌프·계측장비 등 기자재 공급, 중기적으로는 현지 EPC·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장기적으로는 CCUS·수소·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전환 분야 연계로 단계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전통적 O&G 산업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에너지전환이라는 구조적 변화를 기회로 삼아, 안정적인 시장 진입과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라. 디지털 인프라·AI산업

□ 말레이시아 디지털 인프라 및 AI산업 동향

- (디지털 인프라 확산) 말련 정부에 따르면 글로벌기업들의 말련 AI·클라우드 투자 예정 규모가 150억 달러가 이상 되는 것으로 확인
 - * 최근 마이크로소프트(22억 달러) 등 빅테크들을 중심으로, YTL-NVIDIA(23억 6,000만 달러), 오라클(65억 달러) 등 대형 프로젝트들이 본격화
 - ** 특히 조호르주 데이터센터 용량이 '22년(10MW) → '25년(1,500MW) → '27년(3,600MW)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말련 AI·디지털 생태계가 급속히 확장
- (AI 인프라 수요 급증) 대규모 데이터센터와 AI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흐름에 대응하여, 현지에서는 GPU 등 핵심 하드웨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 중
 - * '25년 1~4월 GPU 수입액이 64억 5,000만 달러 규모로 동남아 최대 수준, '25년 4월 한 달만 27억 4,000만 달러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400% 증가한 수치
- 이러한 대규모 투자와 인프라 확충을 기반으로, 말련은 싱가포르에 이은 아세안 핵심 디지털 허브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 현지 주요 기업 및 최근 동향

- (선도기업 중심투자) 말련은 글로벌 빅테크들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및 AI 클라우드 투자가 집중되며 아세안 핵심 디지털 거점으로 부상
 - (마이크로소프트) 22억 달러 규모로 말련 최초 클라우드 리전(Region)을 구축하여, 국가 AI 센터와 인재양성, 산업별 AI 도입 확대 등 다각도의 협력을 추진 중
 - * Microsoft Azure Malaysia West Region : '25년 5월 공식 가동, 최소 3개의 데이터로 구성되며 말련 기업 및 정부가 데이터를 국내에 두면서 Azure·AI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
 - (NVIDIA) 현지 전력기업 YTL Corporation과 협력하여 조호르-쿨라이 AI 슈퍼컴퓨팅 캠퍼스 조성
 - * 약 46억 달러(206억 링깃)가 투자된 프로젝트로 NVIDIA H100/GH200 GPU 기반 초대형 AI 연산 인프라 (총 500MW급)

□ 향후 전망 및 기회요인

- (지역 특화 발전 가능성) 말레이시아는 정부 정책과 산업 집적도를 기반으로 지역별로 다른 형태의 AI 거점이 형성되는 추세
 - (조호르주) 싱가포르와의 초접근성을 무기로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 허브로 발전 가능
 - (페낭주, 쿠알라룸푸르) 반도체·전자 산업과 결합한 AI 설계·테스트베드, 핀테크 및 헬스케어 중심 AI 서비스 거점으로 성장 기대
- (생태계 연계 확대)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정착된 이후에는 이를 활용하는 현지 기업·스타트업 중심의 협력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전망
 - 이는 운영관리(O&M)·보안·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AI SaaS 현지화 서비스, 스타트업 대상 공동 PoC(개념검증) 프로젝트 등 후방 생태계 협업 기회로 연결
- (정책연계 기회) 정부의 제도 정비 흐름은 단순 규제가 아니라 새로운 사업 수요를 창출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전망
 - 말련 정부는 AI 책임원칙, 사이버보안·데이터 공유 법제화를 추진
 - 관련 인증·보안 솔루션 분야에서 외국 기업 협력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
 - * 특히 말련은 크로스보더 데이터 전송·사이버보안·AI 책임성 관련 규칙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 외국 기업에 규범 친화적 시험무대로서 역할 기대
 - 한국은 데이터 보안, 전자정부 솔루션, 산업별 AI 응용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공공부문 프로젝트 참여 가능성이 높은 편
- (한-말FTA수혜) 첨단기술 경제협력 강화 및 진출기업 설비 현지화 요구 금지로 우리 기업 진출 여건 개선
 - 주요 경제협력 분야로 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협력 강화가 제시되며 공동 연구와 교류 협력 증진
 - 한편 컴퓨팅 설비의 현지 설치와 소스코드 요구가 금지되어 우리 진출 기업 부담 완화
- (인재·교육협력 수요) 디지털 인프라 확산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과제로, 현지의 국내외기업과 정부 모두 인재양성이 최우선 과제
 - AI·클라우드 확산 속도에 비해 현지 전문인력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반면,
 - 정부는 '30년까지 20만 명 이상 AI·디지털 인재양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어 교육·훈련·리스킬링 솔루션 수요 폭증 예상
 - 기업이 보유한 AI 교육 콘텐츠, 산학협력 모델은 현지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결합 용이

- 말레이시아는 글로벌 빅테크 투자와 정부 정책지원을 바탕으로 디지털 인프라와 AI 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구조에 진입하며, 지역별 거점 특화·생태계 확장·정책 연계·인재양성 측면에서 우리 기업의 다양한 협력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우리 기업은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 현지 파트너십 기반의 생태계 참여, 공공부문 프로젝트 협력, 인재 교육 연계, ESG 기반 솔루션 제공 등으로 말레이시아 디지털·AI 산업 확산 과정에 전략적인 진출 필요

3. 협력 기회

가. 통상·G2G

□ (무역협정) 한-말 FTA 협상 타결('25.10.26.), 공급망·서비스·디지털협력 확대

-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 최종 타결, 정식 서명 후 협정 발효 예정('25년 11월 기준)
 - (협상경과) '19년 6월 협상 개시 공식 선언 후 말련 측에서 협상 중단 입장표명, 이후 '24년 3월 협상 재개되며 총 9차 공식협상 끝에 '25년 10월 최종 타결 선언
 - (의의) ASEAN 국가 중 6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 한-아세안 FTA(AKFTA)와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 개방 및 경제협력 분야 확대
 - * ASEAN 국가 중 기 FTA체결국 :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니, 필리핀
- (상품) 양측 모두 AKFTA 및 RCEP 포함해 약 95%의 자유화수준 달성
 - (자유화수준) 우리나라 품목수 기준 94.8%(95.5%), 수입액 기준 98.7%(99.3%)
 - 말련 품목수 기준 92.5%(94.5%), 수입액 기준 95.3%(96.3%)
 - (협정결과) 관세 현행 동결, 수출제한 및 비관세조치 도입에 대한 협의절차 마련
 - 미개방 대상 포함 모든 상품에 대해 추후 관세 인상 또는 신규관세 도입 금지
 - (품목) 우리측 288개 품목(수입액 1억 3,000만 달러), 말련측 682개 품목(수입액 2억 6,000만 달러) 추가 자유화
 - (특징) 자동차·철강·화학 등 對말 주력 수출품목 개방 확대
 - ① (자동차·부품) 전기차·CKD 및 자동차 부품의 對말 수출 양허 확보
 - (전기차) 전기차 세 번 18개 중 CKD 7개, 완성차 6개 양허 개선
 - * CKD 전기차 세단 및 SUV 관세 10%에서 철폐, 완성 전기차 관세 30%에서 절반 수준 감축
 - (CKD) 가솔린·디젤·하이브리드 등 CKD 승용차 108개 양허 개선
 - * 가솔린 CKD 자동차는 RCEP 통해서 철폐중이나, 연도별로 1~3%p씩 추가 인하 합의
 - * 하이브리드·디젤 CKD 자동차는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의 관세를 8%에서 4%로 감축
 - (부품) 기어박스, 엔진, 차체 등 주요 품목 관세 추가 인하
 - * 해당 품목은 RCEP에서 장기 관세 철폐 품목이며, 기존 메가FTA대비 93개 관세 추가 인하
 - ② (철강) 철강 품목의 對말 수출 추가 자유화 확보 및 경쟁조건 개선
 - (관세철폐) 냉연, 도금강판 등 9개 품목 관세 5%에서 철폐
 - (관세인하) 열연, 도금강판 등 12개 품목 관세를 15%에서 10%로 인하
 - (면세) 현지 생산이 부재한 철강 전체 품목에 대한 무관세 혜택 명문화
 - (최혜국대우) 무관세 혜택 관련 말련 법령 변경되는 경우 일본 등 경쟁국과 차별하지 않도록 명시
 - ③ (화학)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화학제품의 對말 수출 관세 철폐

- 팜산유 등 對말 수입 바이오원료 관세를 철폐해 원가절감 및 수급 안정 기대
- (원산지)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허용범위 확대
 - (농축수산물) 라면, 커피 조제품, 아이스크림, 스낵류, 소스류 등 가공식품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 RCEP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범위 확대
 - *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은 역내산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만 원산지 인정
 - (공산품) 주력 공산품 품목별 원산지 기준 RCEP대비 완화된 기준으로 합의
 - (누적기준) 상대국 원산지를 활용하여 최종재 생산시 상대국 원산지 재료를 최종재 생산국의 재료로 간주
 - (중간재) 역외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최종재 역내 부가가치 계산에 중간재 생산에 투입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 포함 가능
 - (절차) 향후 자율증명 방식으로 통일
 - * 우리 측은 즉시 전체 자율증명 실시, 말련 측은 5년 내 도입 예정
- (서비스) 말련이 체결한 양자FTA 중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 채택
 - * 네거티브 방식 : 모든 분야의 개방을 전제로 하되, 의무제한 조치를 유지하는 경우 유보에 기재하고 미기재된 분야는 전체 개방된 것으로 간주
 - (래칫) 현행 규제 완화는 가능하나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불가한 자유화 역진방지장치(래칫 메커니즘) 도입
- (투자) 우리 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투자자-국가간 분쟁 해결절차 구체화
 -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상호간 기술이전 요건 등 부과 금지 합의
 - 전기차·픽업트럭 등 자동차 조립·제조 투자에 우리 투자자 지분 제한 철폐
 - 그 외 자동차 분야 투자자 지분 제한 49%까지 완화
- (경제협력) 11개 핵심 협력 분야 선정 및 별도 챕터로 녹색경제 협력 반영

한-말 FTA 핵심 경제협력 분야

구분	내용
산업·제조업	자율주행차, 반도체, 수소, 항공 등 유망산업 양국 투자·기술·인적자원 교류 확대
농수산업	스마트팜 등 농수산업 디지털 전환 협력 확대
과학·기술	AI 및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연구와 연구기관 협력 확대
활랄	기술, 인적자원, 연구개발 등 관련 경험과 지식 공유 촉진
공급망	공급망 MOU를 체결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대응력 강화
바이오경제	원자재 공급망 다변화, 산학연구 확대 등 바이오힐력 기반 마련
지식재산권	양국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지식재산권 보호 체계 구축
규칙·절차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 관세, 식물위생 분야 협력
인적자원	기술·직업 교육, 이공계 전문가 교류 및 현장실습 지원

자료: 산업통상부, KOTRA 쿠알라룸푸르무역관 재정리

- (녹색경제) 녹색무역, 녹색투자, 순환경제, 녹색기술, 녹색표준, 청정·신재생에너지, 디지털산업과 녹색산업간 연계·융합 등 7개 분야 협력체계 마련
- (향후전망) 우리 주력 對 말 수출품목의 수출경쟁력 개선 및 예측 가능성을 제고해 교역 및 투자 기반 강화 기대
 - (유망상품) 자동차, 철강, 화학, 공산품 등 기존 주력 수출상품
 - (유망분야) 반도체 등 첨단산업, 자동차, 소비재(할랄), AI 및 디지털 전환 기술, 수소·CCUS 등 신재생 에너지 등
 - (비고) 관세양허표 발표 전으로 구체적인 협의안은 개시 이후 확인 가능

□ (G2G) 방산을 필두로 에너지전환 및 공급망까지 중장기 파트너십 관계 구축

- 한-말 양국은 '24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로 격상
 - 국방·에너지·핵심광물 공급망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설정
 - 이후 정책·제도적 연계를 통해 중장기 협력의 틀을 공고히 구축
- 특히 말레이시아 국정과제인 13MP, 국가반도체전략(NSS), 신산업 마스터플랜 2030(NIMP 2030) 등 국가 정책과,
 - 한국의 반도체·에너지 전환·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이 맞물리면서, 양국 간 상호보완적 협력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G2G) 국가간 협력 유망분야

① (방산) 다민족·다도서 국가 특성상 군사 전략은 해양 안보와 국경 관리 중심

- (예산) 국방예산은 GDP의 약 1.0% 수준이나 장비 노후화와 해양 안보 수요 증가로 현대화 사업 지속
 - * 주요군 : RMAF(공군), RMN(해군), Malaysian Army(육군)
- 구매·조달 패턴
 - (EU-프랑스·이탈리아·영국) 해군 플랫폼·항공기
 - (미국) 센서·전자전·헬기
 - (한국) 항공기(FA-50), 다연장 로켓(천무) 신규 협력 확대
 - (중국·터키) 드론·저비용 무기체계
- (세부 협력수요) 노후화 장비 교체, 기술이전 등 군 현대화 수요 증가
 - (노후화 장비 교체) 공군 MiG-29, Hawk 등 노후 항공기 전력 교체 시급
 - KAI FA-50 도입(18대 계약, 18개 옵션) 사례에서 한국 기술·가격 경쟁력 확인
 - (패키지 수요) MRO·부품 국산화 및 조종사·정비사 훈련센터 패키지 수요

- (기술이전 및 현지화) 말련 방산업은 외국 업체와의 조달 시 Offset·현지화 요구 → 우리 기업은 부품생산·정비 거점 설립, 현지 파트너사와 JV 구성 필요
- (첨단무기·신산업 연계) 한국은 방산·ICT 융합형(위성통신, AI) 솔루션 제공이 가능, 현지 디지털 전환 국정과제에 따라 적극적인 협력 수요 존재

② (기후변화대응) 넷제로 달성을 위한 현지 민·관의 노력과 더불어 양국 정부는 수소 및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핵심 협력 산업으로 지정

- (현황) 포스코, 삼성같은 우리 대기업이 현지 정부 및 GLC(정부 연계기관)와 함께 프로젝트 개발을 추진하는 등, 양국 간 협력 점차 구체화·다각화되는 추세



말레이시아 최대 전력기업과 우리기업 에너지솔루션 사업 협력('24.4월)

- (개요) 현지 국가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지원을 위한 공동 솔루션 개발
 - (협력기업) 국내기업 A사, 말레이시아 최대전력기업 TNB(Tenaga Nasional Berhad)
 - (협력사업)
 -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및 태양광 등 분산전원 통합 관리를 위한 시스템 공동 구축
 - 마이크로그리드(Microgrid)* 사업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
- * 마이크로그리드 : 재생에너지원과 ESS가 융·복합돼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 시스템

자료: 언론보도 자료 종합

③ (공급망협력)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다운스트림 육성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력 기대

- (현지 동향) 말련은 NR-REE(비방사성 희토류) 매장지 보유, 원광 수출 억제 정책 발표 후 국내 정제·다운스트림 육성정책 추진
 - 비방사성(NR-REE) 기준 약 1,820만 톤의 매장량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MIDA)
 - * 트렝가누주에 약 719만 톤이 매장되어 있으며 이는 전국 매장량의 약 44.4%를 차지
 - EV·배터리·반도체 장비 등 전방 수요 확대로 자석·합금 등 산업 유치에 적극적
- (제도 및 정책협력) 희토류 정제·친환경 제련기술, 합금·자석 가공기술 등에서 공동개발 및 JV 설립 기회 확대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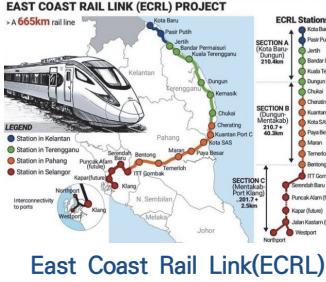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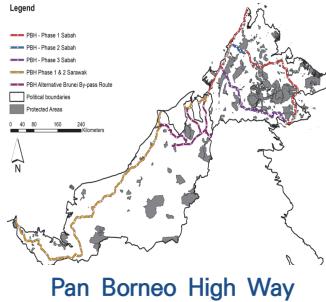
나. 프로젝트

□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동향

- (과거) 말련 프로젝트는 전통적으로 대형 건설·교통 인프라 분야 위주
 - (최근) 정부 기조에 따라 전자정부, 데이터센터, 반도체, ICT, 에너지 등 다양화
- (정책방향) 대형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
 - 장기적으로 첨단기술·혁신·연구 중점 산업에 대한 투자유치를 강화할 계획
 - 특히 13MP에 따라 디지털경제, 에너지전환, 반도체·첨단제조, 녹색인프라 분야를 핵심 성장축으로 설정
- (전망) 향후 프로젝트 발주도 기존의 건설·교통을 포함하여 첨단기술 및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확대될 전망
- (협력수요) 전통적인 인프라 분야뿐 아니라 데이터센터·반도체·스마트시티·재생에너지·수소 등 신산업 프로젝트에서 우리 기업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주요 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MRT Corp • (예산) 약 104억 달러(450억 링깃) • (규모) 총 51km 구간 연장, 31개 역으로 구성되며 이 중 10개 역은 클랑밸리 내 기존 8개 철도 노선과 환승 가능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7.17. 최종 철도 노선안 승인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지 수용규모가 기준 1,012필지에서 690필지로 축소 - 토지 수용은 '26년 말 완료될 예정, '26년 중반에 재입찰 예상 - '27년 착공 예정, '33년 완공 목표 <p>MRT3 Circle Lin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처) Prasarana Malaysia Berhad(말련), SMRT Corporation Ltd(싱가포르) • (예산) 약 23억 달러(100억 링깃) • (규모) 총연장 4km 철도 시스템으로, 말련 조호바루의 Bukit Chagar에서 싱가포르 Woodland까지 연결하며, 시간당 1만 명 수송 가능 •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6월 기준, 철도 시스템 설치 공정률이 56%에 도달하며 안정적으로 진행 중 - '26년 12월 완공, '27년 초 여객 서비스 개시 예정 - 국경 공동 통관 운영을 위한 법안(RUU)이 '26년 2월 국회에 상정 예정 - 한편, 조호르 Iskandar Puteri와 싱가포르 Tuas를 연결하는 제2 RTS 노선 신설 논의가 진행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부 조호르의 연결성 강화와 새로 설립된 조호르-싱가포르 SEZ 지원 목적 <p>Johor-Singapore RTS Link</p>

프로젝트명	내용
 East Coast Rail Link(ECRL)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 Malaysia Rail Link Sdn Bhd(MRL) (예산) 약 116억 달러(502억 7,000만 링깃) (규모) 노선 길이는 약 665km이며, 복선 및 전철화된 철도망을 포함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구간 : Kota Bharu → Gombak → Port Klang을 연결. 동해안 지역(클란탄, 뜨렝가누, 파항 등)과 말레이반도 서부(클랑 밸리 지역)를 연결하는 축으로 설계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년 11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76.1%에 도달 - '26년 12월까지 Kota Bharu ↔ Gombak 구간을 완공 목표로 하며, Gombak ↔ Port Klang 구간은 '27년 완공 목표로 설정됨
 LRT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 Prasarana Malaysia Berhad(말련) (예산) 74억 달러(316억 5,000만 링깃) (규모) 전체 노선 길이는 약 37km, 정거장 수는 26개 역으로 설계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노선 : Bandar Utama ↔ Johan Setia 구간 연결 - 설계 용량 : 시간당 양방향 승객 처리량 약 18,630명 수준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년 7월 기준, 전체 공정률은 99.2%에 도달 - 당초 운행 시작을 '25.9.30.으로 계획했으나, 일부 일정이 지연되어 연내 개통 가능성으로 조정
 Pan Borneo High W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주처) Lebuhraya Borneo Utara Sdn Bhd(LBU) (예산) 초기 37억 5,000만 달러(161억 5,000만 링깃) (규모) 전체 말레이시아 구간 길이는 약 2,083km 수준이며, 보르네오섬 내 사바·사라왁을 연결하는 도로망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바 구간의 Phase 1 일부 패키지는 약 82% 공정 완료 보고 - 사라왁 구간은 '25년 4월 기준 약 99% 완성되었다는 보도 있음 - 전체 완공은 '26년 예정

자료: 프로젝트별 언론보도 내역 종합

□ 우리 기업 협력 유망분야

- (G2B 협력)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대형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의 발주 주체는 대부분 말련 정부 또는 산하기관
 - 우리 건설·엔지니어링 기업들은 정부 발주 인프라 사업에서 설계·시공(EPC), 토목공사, 플랜트, ICT 기반 스마트 교통 솔루션 제공 가능
- (B2B 협력)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의 주계약자는 다국적 컨소시엄이 보편적
 - 한국 기업은 현지 건설·엔지니어링사와의 협력이 유망
 - (철로) 현지 건설 대기업(Gamuda, IJM 등)이 주도하는 패키지 공사에서 철강·레일, 플랜트 기자재, 스마트 교통 솔루션 납품 기회 * MRT3, LRT3 등

- (도로·교량) 장거리 고속도로(판보르네오고속철) 및 교량 건설 사업(사바-사라왁 연결로)에서 우리 도로·교량 건설사, 토목 자재 기업의 진출 기회 확대
- (기대효과) 우리 기업은 G2B에서 B2B로 단계별 진출 가능
 - 정부 발주(G2B) 프로젝트 참여 → 현지 대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 기자재 및 시스템 납품·공급 (B2B)
 - 말레이 인프라 투자로 주요 교통망 현대화 및 지역균형 발전을 추진하는 만큼, 한국의 철도·교량·스마트 교통 시스템 경쟁력이 매칭될 수 있음



MRT Sungai Buloh-Kajang Line(SBK Line) 프로젝트 한-말 협력 사례

- (개요) MRT Sungai Buloh-Kajang Line(SBK Line) 프로젝트 협력 사례
- (발주처) Mass Rapid Transit Corporation(MRT Corp, 정부 산하)
- (예산) 약 53억 달러(230억 링깃)
- (규모) 총연장 51km(약 고가 구간 41km, 지하 구간 약 9.5km)
- (프로젝트 내용)
 - 주요 시공사로 Gamuda-MMC JV가 메인 컨트랙터로 선정
 - 일부 구간·공구 공사에서 삼성 C&T, 현대건설이 해외 건설사로 참여
 - * MRT1 노선 중 고가교(Viaduct) 및 일부 역사(Station) 건설 포함
- 무역관 담당자가 말하는 시사점
 - 삼성물산·현대건설 모두 현지 대형 건설사(Gamuda, Muhibbah 등)와 JV(조인트벤처) 형태로 참여하여 공구 단위 시공을 맡음
 - MRT, LRT, ECRL 등 대형 교통 인프라는 세부 패키지별로 분리 발주가 이뤄지므로, 우리 기업이 전체 프로젝트 규모는 크지 않아도 특정 구간·역사·기술 분야에 특화 진입할 수 있음

자료: 언론보도 자료 종합

III. 진출전략

- | | |
|-----------------|----|
| 1. PEST/SWOT 분석 | 74 |
| 2. 진출전략 | 76 |

III 진출전략



1. PEST/SWOT 분석

PEST 분석



정치정책(Political)

- (대내) '22년 11월 출범한 연합정부가 안정적으로 정국 운영 중이나 '26년부터 東 말련 자치권 강화로 정치지형 변화 전망
- (대외) 미·중 간의 외교에서 균형을 추구하는 동시에 EU, GCC, BRICS 등 수출·투자국 다변화 도모
- (정책) MADANI 프레임워크 하에 일관성 있게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 추진, 관 주도로 산업 고도화 도모
- (재정개혁) 정부는 보조금, 조세 기반 확대, 부채 축소와 같은 재정개혁을 추진해 장기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



경제(Economic)

- (경제성장) '25년 경제는 4%대의 안정적 성장 전망
- (소비자물가) 보편보조금 축소에서 맞춤형 지원 전환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이 압박되는 한편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이 확대되며 일부 보완
- (투자 모멘텀) '25년 상반기 JS-SEZ 및 공급망 재편으로 투자 확장세가 지속되나 '26년부터 다소 정체 전망
- (산업 모멘텀) 풍부한 천연자원과 글로벌 공급망 기반으로 동남아의 주요 제조업 생산기지



사회문화(Social)

- (인구·노동) 인구 3,420만('25년), 실업률 3%대, 최저임금 인상 및 기술숙련도 향상 정책으로 노동시장 안정화
- (소비트렌드) 도시화된 라이프스타일 및 저소득층 디지털 포용정책(My Device, GigUp 등)으로 전자상거래 확대
- (종교)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에 따른 종교적 소비 확산 트렌드로 할랄인증 중요도 증가
- (사회정책) 부미푸트라 우대정책 지속 및 확대 전망



기술(Technological)

- (반도체고도화) 전통적 후공정 강자에서 전공정 밸류체인 진입 목표
- (디지털전환) 전산업 분야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및 AI·데이터센터·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인프라 조성
- (에너지전환) 산업 전반의 탈탄소화 추진, 석유·가스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태양광·수소·CCUS)·희토류 가치사슬 구축
- (민관협력) 주요 디지털 전환·에너지전환·인프라 프로젝트 민관협력 확대 도모

SWOT 분석

강점(Strength)



- 반도체산업 첨단 제조 역량 보유
- 기기·부품·장비 등 한국산 제품은 현지에서 기술·품질 신뢰도 확보
- 한류 인기 지속되며 K-소비재 긍정적 이미지 형성
- 디지털 및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다수 수행 경험으로 고도화된 서비스 제공 가능

약점(Weakness)



- 일부 기간산업은 외국 기업 진입 제약
- 일본·미국 대비 현지 생산·R&D 거점 적은 편
- 종교적 차이로 국내 할랄 산업 미성숙
- 왓슨스 등 현지 대형 유통망과의 장기 협력 애로

기회(Opportunity)



- 반도체·신재생에너지·디지털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국가적 지원
- 산업 생태계 재편 과정으로 로컬기업의 기술력이 부족해 외국 기업 협력 필수적
- 이커머스 성장세 및 디지털친화적 시장으로 초기 부담 최소화하며 시장 진입 가능
- 한-말 FTA 타결이 협상되어 말련을 교두보로 ASEAN 및 글로벌시장 확장 가능

위협(Threat)



-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로 대외불확실성 多
- 재정 건전화 정책으로 소비심리 둔화
- 말련 내 일본·미국 기업의 장기 투자, 중국의 저가 공세 등 국내외 경쟁 심화
- 자국민·자국산업 우대정책의 비관세장벽화(부미푸트라제도, 외국인 노동 제한 등)

SO 전략(적극적 공격-역량 확대)

- (반도체) 첨단기술 바탕으로 전공정 공급망 진입
- (에너지) 기술·품질 신뢰도 기반 파트너십 구축
- (디지털) 맞춤형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해 시장 진입

(반도체)

첨단 기술 기반 공급망
및 산학연 협력 확대

ST 전략(차별화전략-강점 활용)

- (공통) 차별화된 품질로 현지 밴더사 납품 공략
- (에너지) 단계적 레퍼런스 확보 후 한-말 FTA기반 G2G, G2B, B2B 장기 파트너십 구축 도모

(소비재)

할랄과 한류 마케팅으로
소비자 신뢰도 제고

WO 전략(단계적 시책-기회 포착)

- (소비재) SNS마케팅 활용 온라인 시장 공략
- (반도체) USM·UTM 등 현지 대학과 산학 프로그램 운영

(에너지)

품질경쟁력 기반
장기파트너십 도모

WT 전략(방어/철수-위협 대응)

- (소비재) 합리적 프리미엄 가격설정 및 할랄인증 확보
- (공통) 부미푸트라 협업 및 JV설립으로 불확실성 분산

(디지털)

차별화된 패키지형
서비스로 시장 진입

2. 진출전략

2026년 진출전략

주요 이슈 또는 산업

반도체 및
전기·전자

소비재
(할랄·한류)

에너지 및
플랜트

AI 및
디지털인프라

KOTRA가 제시하는 진출전략



- 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글로벌 공급망 진입 모색
 - (투트랙진입) 현지 OSAT 공급업체 협력으로 간접 공급망 진입 및 법인설립 후 글로벌기업 공급망 직접진입 기회 모색
 - (협력분야확대) 엔지니어 양성 및 R&D 생태계 협력 강화
 - (파트너발굴) 글로벌기업 포함 347개 회원사 보유한 현지 반도체협회 (MSIA)와 협력해 핵심 파트너 발굴

- 전략적 할랄인증과 한류 마케팅 활용 소비재 진출 확대
 - (할랄인증) 품목별 시장 특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적·단계적으로 할랄인증 확보
 - (한류마케팅) 한류 기반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인지도 제고
 - (현지화전략) 현지 구매력 고려한 가격과 용량 설정 및 이커머스 성장세에 따라 온라인 유통망 진출 확대

- 에너지 전환기, 단기 레퍼런스 확보 후 장기 파트너십 모색
 - (단기) EPC, 현지 벤더사 대상 기자재 공급 기반 진출
 - (중장기) 핵심 벤더 협력 및 파트너사 네트워킹을 통한 주요 프로젝트 동반 참여
 - (장기)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기반, 정부 프로젝트 민관협력으로 장기파트너십 구축

-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디지털 전환 시장 선점
 - (상호보완적협력) 말련의 제조 경쟁력과 한국의 디지털 역량 결합, 상호보완적 산업 협력 모델로 발전기회 모색
 - (패키지형) 단일 솔루션이 아닌 산업별 통합 패키지형 서비스로 제공해 시장 확산과 고객 락인
 - (민관협력) MyDIGITAL 등 국가 전략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춘 정부 프로젝트 참여 기회 모색

전략 ①**반도체 산업 고도화에 발맞춰 글로벌 공급망 진입 모색****전략 수립 배경**

- 말련은 최근 3년간 국가 중장기 개발계획에서 반도체산업을 핵심 성장동력으로 규정
 - 13차 말레이시아계획('25년), 국가반도체전략('24년), 신산업 마스터플랜('23년)
-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산업은 말련 제조업 부가가치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며, 특히 OSAT(후공정) 글로벌 점유율 13%로 공급망 주요 허브로 기능
- 말련은 반도체 가치사슬 업그레이드를 국가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이 가진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 특히 메모리·후공정·소부장 분야에서 상호보완적

□ 말레이시아 반도체산업 동향

- (산업 개요) 반도체를 포함한 전기·전자 산업은 말련 GDP의 7%를 차지하는 주요산업이자 전체 수출의 약 40%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품목
 - 세계 6위 반도체 수출국으로(전체 점유율 약 7%),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기지
 -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 과정 속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로부터 핵심 투자처로 현재 각광받는 추세
- (산업 구조) 반도체 생태계는 글로벌 대기업(인텔, 마이크론) 주도로 후공정 산업이 주축을 이루며, 현지 공급망과 동반 성장하는 구조
 - 한편 국가 차원에서 벤류체인 상위단계로의 진입 적극 추진, IC 설계·첨단패키징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산업 고도화를 가속화하는 단계

□ 유망 품목

- 한국이 보유한 메모리, 후공정,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기반으로, 말레이시아 반도체 벤류체인별 주요 수요 영역을 정밀 공략할 수 있는 진출 포인트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전공정) 파운드리·팹은 제한적이나 포토레지스트 등 소재 공급 가능
- (후공정) 말련 주력분야(OSAT)와 연계, 후공정 단 장비 및 부품 공급 유망
 - 인텔·마이크론 등 글로벌기업이나 이나리 등 로컬 스타플레이어 현지 제조시설 대상 첨단 패키징 장비, 검사 장비, PCB 등 공급 등
 - 디지털 전환·스마트공장 도입과 맞물려 AI 기반 검사 장비 도입 수요 증가

- (기타) 글로벌기업들의 폐낭·쿨링 신공장 증설에 따라 장비 국산화율 제고 및 공급망 다변화 수요 발생
 - ATE(자동화 검사장비), 클린룸·진공펌프·정밀부품 등 검사 장비 중심으로 글로벌기업 공급망에 납품 가능 품목 다수

□ 진출전략

- (투트랙진입) 현지 글로벌기업 공급망 직접 진입 및 현지 OSAT 공급업체 협력을 통한 간접 진입 동시 추진
- (글로벌기업) 현지 글로벌기업과 매칭프로그램 통해 현지 조달네트워크 편입모색
 - 최근 글로벌기업은 공급망 안정성, 물류 효율,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주요 협력사에게 동반 진출을 요구하거나 권장하는 경우 다수(Co-Location 전략)
 - * 한국 주요 부품·장비업체들도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과 동반 거점을 구축하는 추세
 - 로컬서플라이어 자격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소규모라도 폐낭·쿨링 등 핵심 거점 내 영업·서비스 법인을 설립해 향후 조달 기회 확보 가능



(참고) 국내기업 S社-마이크론 동반진출 협력 사례

- (개요) 반도체 패키지 기판 및 PCB 전문 업체인 S社의 경우, 글로벌 메모리 기업 마이크론의 전략적 파트너로 긴밀히 협력, 중국 시안과 말련 폐낭 등지에서 ‘동반 입지(Co-Location)’ 전략을 추진
- (협력모델)
 - Co-Location 전략 : 핵심 고객사인 마이크론 생산거점 인근에 공장을 설립 → 공급망 안정성·물류 효율 극대화
 - 제품영역 : DRAM·NAND용 반도체 패키지 기판, SSD 모듈 PCB 등 핵심 부품 안정 공급
 - 최종 고객사인 마이크론은 현지 투자 연결 및 규제 준수 지원, 국내기업은 현지 생산·인력 운영
- (시사점)
 - 글로벌기업과의 동반 진출 사례는 단순 공급 관계를 넘어, 현지 인허가·투자·인재 확보까지 함께 풀어가는 모델
 - 한국 소부장 기업이 글로벌기업 중심 공급망에 진입할 때, S社-마이크론 사례처럼 전략적 파트너십 기반 Co-location을 벤치마킹할 필요
- (로컬기업) 이나리·카르셈 등 로컬 Tier-1 OSAT 협력업체와 서브서플라이어 협력으로 글로벌기업 공급망 간접 납품 기회 확보
 - OSAT 외 분야 로컬기업은 ATE(자동테스트장비) 활용 역량이 강한바, 테스트 최적화, AI 접목 검사 솔루션, 장비 스펙 업그레이드와 같은 협력 제안이 효과적
 - * 단순 납품을 넘어 ‘현지 OSAT의 테스트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술적 파트너’로 포지셔닝

- (협력분야확대) 고숙련 반도체 엔지니어 교육 프로그램 및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으로 R&D 생태계 협력 강화
 - 말련은 반도체 엔지니어 6만 명, 반도체 기업 성장 등을 국정과제로 지정
 - 현지는 IC설계 및 파운드리 인프라가 제한적으로 한국의 기술력 및 파운드리 협업경험을 바탕으로 한 협력수요 발굴 기대
- (파트너발굴) 현지 반도체협회는 인텔·마이크론 등 글로벌기업 포함 347개 회원사를 보유, 핵심 파트너 발굴 채널로 활용 가능
 - * MSIA 회원사 디렉토리 : https://www.msia.org.my/members_directory
 - ** KOTRA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한국반도체협회(KSIA) 등과 협력관계를 통해 한국유관기업들의 현지진출 및 파트너링을 상시 지원 중

전략 ②

전략적 할랄인증과 한류 마케팅 활용 소비재 진출 확대



전략 수립 배경

- 말련은 이슬람국가로 무슬림 인구 약 70%, 非무슬림 인구 약 30% 수준이며 직접 섭취하는 소비재는 할랄인증이 중요하나, 비섭취 소비재는 논할랄 제품도 일정 수준 유지
- 무슬림 인구 확대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시장·정책적 관점 모두에서 할랄인증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한편 현지는 SNS 활용이 활발해 한류 컨텐츠를 다수 소비하며 K-소비재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보유, 한-말 FTA로 양국 할랄협력 확대 전망되어 우리 기업의 할랄소비재 역량 강화 기대

□ 현지 동향

- (할랄 중요성) 말련 정부는 13차 말레이시아계획(13MP)에서 할랄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동력이자 수출동력으로 육성할 계획 발표
 - * '30년까지 할랄산업의 GDP 기여도를 11%까지 확대, 수출 목표를 약 186억 달러(800억 링깃)으로 상향 조정
 - 무슬림 인구 비율 증가하는 추세로 식음료·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직접 섭취·사용재 중심으로 할랄 인증 수요 증가
 - 현지 할랄인증은 JAKIM이 독점 관할하며 인증 비용 및 절차 까다로워 한국 중소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 한국 할랄인증으로 교차인정 가능
- (소비 트렌드) 이커머스 성장세에 따라 소비패턴 변화 및 젊은 세대 중심으로 가치소비 트렌드 확산
 - (이커머스) 쇼피, 틱톡샵 등 이커머스 성장세로 특히 비섭취 소비재 중심으로 온라인 쇼핑 비중 증가
 - (가치소비) SNS를 중심으로 종교·윤리적 소비 트렌드가 확산되며 할랄인증 보유 로컬 브랜드 제품과 비건 제품 인기
- (한류 인기) 넷플릭스 상위 10위 컨텐츠에 한국 컨텐츠 매번 진입, K-Pop 가수의 공연 매진 등 한류 인기 지속
 - 컨텐츠 인기는 한국 소비재, 특히 식품·화장품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연결

□ 유망 품목

- (식음료 일반) 라면·스낵류·즉석식품 등 대중적 필수재 성격 제품
 - 현지는 한국 대비 자극적인 맛을 선호하며 저용량·저가형 패키징이 일반적
- (화장품·개인용품) 럭셔리 시장과 중저가형 시장으로 양분되며 중저가형 시장은 중국·인니·태국 브랜드 진출 확대로 초저가화 추세

- K-뷰티 프리미엄과 기술력 바탕으로 중고가형 시장 타깃 유망
- (건강기능식품)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건강·미용 목적 기능성 제품 수요 증가
 - 한국산 콜라겐·기능성음료·영양제 등은 한류 및 브랜드 신뢰도 바탕으로 시장 확대

□ 진출전략

- (할랄인증) 품목별 시장 특성과 소비자 신뢰 확보 필요성을 고려해 선택적·단계적으로 인증을 추진하여 현지 소비자 수요 대응
 - 직접 섭취하는 제품일수록 할랄인증이 권장되나, 할랄인증은 제품당 받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비자 반응에 따라 전략적 인증 권장

구분	내용	인증필요도
식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기, 달걀 등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할랄인증 의무 • 라면·스낵류 같은 대중 식품도 시장 확대를 위해 유통망에서 할랄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며 로컬기업은 대부분 할랄인증 보유 • 할랄인증 없이 초기 진입은 가능하나 시장 확대 시 할랄인증 필수 	上
건강기능식품 영양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교적 예외 조항으로 非할랄 제품 섭취가 허용되기도 하나, 대중적 브랜드일수록 할랄인증 보유 비율 높음 • 한국산 콜라겐, 기능성 음료 등은 한류로 브랜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으며, 할랄인증으로 신뢰도 강화 가능 	中
화장품 개인용품 기타 생활소비재 (비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으로 의무는 아니지만, 로컬브랜드 다수가 인증을 보유해 인증 중요도 증가 추세 • K-뷰티는 품질, 한류를 활용한 브랜딩 강점이 있으므로 초기 진출은 비건·클린 뷰티 등 대체 마케팅 활용, 장기적 확대 단계에서 할랄인증 추가 획득 고려 	下

- (국내인증) 국내 교차 인증(KMF, KHA) 기관 활용해 인증 비용 절감 및 절차 단축
- (한류마케팅) 한류 기반 온·오프라인 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특히 현지는 SNS 사용률이 높아(전체 인구의 85% 수준) SNS채널 소통과 라이브커머스·인플루언서 마케팅 활용해 소비자 친숙도 상승 및 구매심리 자극
 - 한류 기반으로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해 낮은 가격경쟁력 보완
- (현지화전략) 상품 및 유통망에서 현지 소비 트렌드 반영한 전략 필요
 - (제품) 현지 입맛에 맞춘 제품 개발 및 낮은 구매력 고려 저가·저용량 구성
 - (식품) 해산물·닭고기 등 현지 선호도가 높은 맛을 반영한 라인업 출시
 - (화장품) 고온다습한 환경에 적합한 가벼운 제형 개발 및 비건·클린뷰티 마케팅
 - (공통) 현지는 품질보다 가격에 민감하며 중국·동남아산 중저가형 제품 진출 확대로 초저가형 시장 확대됨에 따라 합리적 프리미엄 가격 설정 필수적
 - (유통망) 현지 대표 온라인 유통망인 쇼피·라자다·틱톡샵 등을 활용한 초기 진출 → 판매실적 및

레퍼런스 기반 현지 대형 오프라인 유통망 입점 기회 모색

* 대표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 왓슨스, 가디언, AEON 등

* 역직구 활용으로 현지 생산·물류 투자 없이도 시장 테스트 및 확대 가능

- 우리 기업은 제품에 따라 전략적으로 할랄인증을 확보하고 한류 연계한 활발한 SNS마케팅을 활용해
말련 소비재시장 진출 가능.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소비자 신뢰 확보 후
본격적인 오프라인 시장 진출과 글로벌 할랄 소비재시장으로의 확대 모색

전략 ③**에너지 전환기, 단기 레퍼런스 확보 후 장기 파트너십 모색****전략 수립 배경**

- 말련은 전통 석유·가스 중심 에너지믹스에서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수소·CCUS 등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도모
- 우리 기업은 정밀 기자재·EPC·조선 경쟁력과 CCUS·수소 등 탈탄소 기술을 바탕으로, 말련의 전통 석유·가스 산업 고도화 수요와 에너지전환 신사업을 동시에 공략 가능

□ 현지 동향

- (산업구조) 말련은 전통적 기간산업인 석유·가스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최근 '5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추진
 - 에너지산업은 말련 GDP 전체의 20%에 기여하며 이중 산업석유·가스·서비스·기자재(OGSE)가 GDP의 약 5%~8% 수준
- (기업지형) 국영기업 페트로나스·페트로스가 국내외 주요 프로젝트 총괄
 - EPC·현지 벤더사(MHB, Vantris Energy 등)가 국영기업과 계약을 맺고 운영·시행·관리·유지보수 등 실 프로젝트 수행
- (신규프로젝트) ESG 규제, 환경영향평가(EIA) 및 페트로나스 탄소중립 전략(NZCE 2050) 전략 기반 재생에너지, 수소, CCUS 사업 확장
 - Kasawari CCS 프로젝트, 사라왁주 블루·그린 수소 등 대형프로젝트 착수
 - '26년 예산안에 에너지전환 프로젝트 예산 약 3,500만 달러(1억 5,000만 링깃) 배정

□ 유망 품목

- (전통산업) 산업 고도화 및 친환경 전환에 따른 솔루션
 - (업스트림) 심해시추장비, 해양구조물안전기술, FPSO 등 탐사·생산 장비 및 솔루션
 - * FPSO : 부유식 원유·가스 생산·저장·하역 설비로, 파이프라인 연결이 어려운 해상 유전 개발에 필수
 - (다운스트림) 석유·화학 플랜트, EPC 등 고도화 공정에 필요한 촉매·특수화학소재
 - * 조호르주 팡게랑(Pengerang Integrated Petroleum Complex, PIPC)을 중심으로 정유·석유화학 클러스터를 확대 중이며, 신규 투자 플랜트 증설 프로젝트 추진
 - 특히 LNG·해양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LNG 플랜트 협력, 고부가 선박(LNG 운반선, 탱커 등), 해양 구조물 엔지니어링 등이 유망
- (신산업) CCUS 저장·수송 기술, 수소 생산·저장 장비, 스마트그리드 및 재생에너지 설비 등 녹색산업 분야 전반

- (산업전반) 밸브, 펌프, 압축기, 센서, 제어시스템 등 정밀 산업 기자재
 - (철강) 한-말 FTA로 냉연, 열연, 도금 등 주력 철강품목 관세 철폐 및 감축

□ 진출전략

- (요약) 단기 부품 공급 → 중기 프로젝트 협력 → 장기 정부-민간 파트너십 구축으로 단계적으로 진입 확대
- (단기) 페트로나스·페트로스의 Tier 1·2 벤더사 대상 기자재 공급 기반 진출
 - 로컬이나 중국산 경쟁사 대비 한국산 정밀 산업 기자재는 품질경쟁력 보유
 - 밸브·펌프·계측장비 등 정밀 산업 기자재 납품을 통한 시장 진입기회 모색
- (중기) EPC 중심, 핵심 벤더 협력 및 네트워킹을 통한 프로젝트 동반 참여
 - 핵심 벤더(MHB, Vantris Energy 등) 협력 사라왁·조호르주 등 프로젝트 수요 기반이 높은 지역에서의 하도급·부품 공급망 진입
- (장기) 국가에너지전환 로드맵(NETR) 기반 G2G-G2B-B2B 협력 확대, 한국 대기업 참여 이력 바탕으로 장기 파트너십 구축
 - 재생에너지·수소 프로젝트 확대를 통해 국가 차원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단계
 - 한국 기업은 CCUS·수소·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장기적 협력 파트너로 자리매김 필요
 - 특히 한국-말레이시아 공동 CCUS ‘셰퍼드 프로젝트’는 민간 협력 차원을 넘어
 - 정부 간 협력(G2G), 국영기업-외국기업 협력(G2B), 민간기업 간 협력(B2B)이 동시에 진행되는 전략적 사업
 - 양국의 기후변화 대응 G2G 협력 의제와 직결되어 향후 협력 기회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
- (FTA활용) 한-말 FTA 협정문에 녹색경제 별도 챕터 반영해 녹색기술, 청정·신재생 에너지 협력 강화 명시
 - 협상 발효 후 우리 기업의 에너지 분야 진출 여건 개선 기대
- (유의사항) 환경규제 및 부미푸트라 지분요건 등 규제 강화 대응 필요
 - EIA(환경영향평가), ESG 공시 등 에너지 분야 기업들 대상 규제 강화 추세
 - 또한 '26년 탄소세 도입이 예고되어 시장 지형 재편 예상
 - 에너지산업은 부미푸트라 기업 협업 및 파트너십 구축이 프로젝트 진입의 선제조건으로 파트너사 협력 통해 규제 대응 필수적
 - 현지 컨설팅 등 활용해 허가·규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
- 석유·가스를 비롯해 에너지 산업은 국가 기간 산업으로 외국계 및 非무슬림계 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나, 말련 정부는 외국의 선진기술 수용 및 민관협력(PPP)을 통한 인프라 개발을 도모. 이에 기자재 납품으로 단기 레퍼런스 확보 후 장기 파트너십 구축 전략 추진.

전략 ④ 패키지형 솔루션으로 디지털 전환 시장 선점



전략 수립 배경

- 말련 정부는 국가인공지능로드맵과 MyDIGITAL 정책을 통해 AI 산업화를 국가 핵심 어젠다로 설정, 데이터센터·디지털인프라 투자유치 확대 및 '30년까지 3,000개 스마트팩토리 구축 목표
- 한국 기업은 ICT 인프라·AI 응용기술에 강점 → AI 소프트웨어, 데이터센터 전력관리 등에서 차별적 경쟁력 보유

□ 현지 동향

- (반사효과) 전통 데이터센터 허브였던 싱가포르의 신규 허가 제약으로 인근지인 말련 조호르주가 스플로버 지역으로 부상
 - 싱가포르는 전력 수급·환경 규제·토지 제약으로 대형 데이터센터 신규 허가를 중단하는 모라토리엄을 시행('23년 해제)했으며 현재까지도 높은 설립기준 요구
 - '25. 2분기 기준 조호르주는 약 382억 달러(1,644억 링깃) 규모의 총 42개 프로젝트 승인, 말련 정부는 조호르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투자유치 확대 계획
- (글로벌기업투자) 최근 2~3년 사이 글로벌 빅테크·클라우드 기업들의 집중 투자가 이어지며 동남아 디지털 허브 경쟁의 핵심축으로 대두
- (정책지원) 정부는 데이터센터·클라우드·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정책적 노력
 - MyDIGITAL 등 중장기 정책을 비롯해 국가AI사무소 설립('24년 12월), 데이터센터프레임워크 발표('25년 예정) 등 세부 산업별 시행 정책 고도화 단계

□ 유망 품목

- AI와 디지털 인프라는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제조·에너지·물류·의료·금융·소비재 등 전 부문에 적용 가능한 범용 기술
- (제조업) 스마트 팩토리·예지정비, (에너지) 전력 수요 관리·재생에너지 최적화, (금융) 사이버보안·디지털뱅킹, (의료) EMR·AI 진단 기술이 유망

산업별 AI 활용 사례

산업	산업 적용(솔루션)	주요 효과
제조업 (철강)	스마트팩토리 시스템 구축, 설비 센서 데이터 실시간 분석 → 고장 예측, 공정 제어	불순물 제거·온도 제어·중단 없는 연속 작업 등 생산성 및 품질 향상
반도체	AI 기반 빅데이터 분석으로 불량 원인 분석 / 손실 최소화	웨이퍼 손실 최소화, 공정 안정성 강화
금융(은행)	AI 챗봇·음성 상담, 맞춤형 금융비서, 로보어드바이저	상담 자동화, 고객 맞춤 상품 추천, 자산관리 제고
유통	수요 예측, 재고 관리, 맞춤형 타깃 광고 추천	물량 최적화, 폐기 감소, 고객 타깃팅 광고 수익 창출
의료	AI가 X-ray, CT, MRI 영상 데이터를 학습해 이상 여부를 자동 탐지	영상 판독 속도 단축 → 응급환자 진단 신속화 판독 정확도 향상 → 인간이 놓치기 쉬운 미세 병변 발견

□ 진출전략

- (상호보완적협력) 말련의 제조업 및 산업 인프라와 한국의 ICT·AI 역량을 결합하여 상호보완적 산업 협력 모델로 발전기회 모색
 - (반도체·제조) 한국의 AI 기반 품질·검사 기술 → 현지 OSAT 생산시설 도입 검토
 - (에너지) 전력·수자원 등 주요 에너지 효율 개선 시스템 수요 증가 전망
 - (의료·바이오) 한국의 AI 기반 영상진단 솔루션 등의 현지 병원 연계 도입
 - (유통) 현지 물류창고에 한국의 AI기반 스마트 물류관리 솔루션 PoC 추진 등
- (패키지형) 현지는 신기술에 개방적이거나 숙련된 인재 부족으로 단일 솔루션을 넘어 산업별 통합 패키지형 서비스 제공
 - 범용 기술로서 AI와 디지털 인프라는 전 산업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것을 감안해 산업 단위의 통합 패키지에 대한 수요 존재
 - 또한 서비스 도입 후 애프터케어를 제공해 고객 락인 효과를 극대화
 - 단기 시스템 도입을 넘어 장기적인 디지털 전환 동반자로 발전 기대



주요 사례 : 국내 G社 AI 하이퍼오토메이션(초자동화) 서비스

- (기술개요) G社는 제조업 특화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조공장 맞춤형 종합 AI 예지정비 서비스를 제공
 - AI 기반으로 설비 동작 상태를 학습하고, 고장 유발 원인 탐지 및 이상 징후 알림 등을 수행 → 기계·설비의 안정 운영을 지원하는 초자동화(하이퍼오토메이션) 역량 발휘
- 주요 솔루션
 - PPdM(Proactive Predictive Maintenance) : 설비 진동 센서 데이터를 LTE 무선망 등을 통해 클라우드로 전송 → AI가 구성 요소별 이상 징후를 실시간 분석하여 고장 예측 알림 제공
 - FDC(Fault Detection & Classification) : 시스템 및 기계 오류 데이터를 사전에 감지하고 분류 → 고장 발생 가능성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지보수 의사결정 지원
 - 이외에도 DAQ(Data Acquisition) 기반 데이터 수집, 스마트엣지 기반 현장 AI 분석, 공정 시스템 전체 모니터링 기능 등을 통합 구성
- (시사점) 단순한 예지정비 모듈에 그치지 않고, 공정 전반에 대한 컨설팅과 맞춤 설계 제공을 통해 고객 유인력 강화

자료: 기업 홈페이지 및 언론 보도내역

- (민관협력) MyDIGITAL, 국가인공지능로드맵 등 국가 전략산업 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진입해 세제 혜택·R&D 인센티브·공공 프로젝트 참여 기회 확보
 - 말련 정부는 디지털 전환에 있어 민관협력(PPP)를 통한 발전 의지 강조
 - 한-말 FTA로 양국 AI 및 첨단기술 분야 공동 연구와 연구기관 협력 확대 합의
 - 우리 기업은 공공·민간 컨소시엄 참여로 초기 레퍼런스를 확보 → B2G·B2B 동시 진입하는 단계적 모델이 권장



반도체 검사장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OSAT, ATE 중심의 산업구조 편성, 수출기회 확보 높음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낭, 쿨링에 글로벌 장비기업(Advantest, Teradyne) 서비스 지점 다수 진출, 일부 로컬 중소업체가 리퍼비시 장비 공급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성 높은 최신 장비와 현지 AS·PoC 라인 연계로 중고장비와의 차별화, 인텔·마이크론 등 글로벌기업 협력 확대 |

전력용 GaN/SiC 반도체 모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V 충전 인프라·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전력반도체 관련 기업 다수포진 등 전력 효율 제품 수요 급등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NB·Gentari 주도로 EV 충전소 확대, 현지 사용 제품은 주로 일본·중국계 모듈, 로컬 제조는 미흡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tari·TNB 프로젝트 입찰 시 말레이시아 EPC사와 컨소시엄 구성, 고효율·장기 보증 조건으로 차별화 |

데이터센터 냉각장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데이터센터 진출 확대('27년 3,600MW 목표)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 플레이어(미국, 프랑스) 중심으로 시장 주도, 현지 EPC(YTL Power, Gamuda 등)가 주요 발주처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고효율 UPS·액침냉각장치 제공, 로컬 EPC와 공동 납품 체계 구축 |

에너지저장시스템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라 대규모 태양광 프로젝트(Large Solar Scale) 추진, 에너지믹스 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목표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저가 모듈 강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고효율 모듈+ESS 패키지로 차별화, 현지 EPC와 협업 |

철강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전환 및 디지털 전환정책으로 인프라 프로젝트 다수 추진해 수요 증가, 한-말 FTA로 기존 대비 관세율 인하 및 철폐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컬기업은 저부가가치 제품 집중, 중국·일본·베트남 등 경쟁 심화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년 단소세 도입 예정으로 단소중립 철강 등 고부가 철강에 집중, FTA를 활용해 가격경쟁력 제고 |

자동차·자동차부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말 FTA 주요 수혜 품목으로 관세인하 및 철폐, 지분 제한 개선으로 진출 여건 개선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국 브랜드(프로톤, 폐로두아) 점유율 60% 이상, 일본(도요타, 혼다) 등 강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어박스, 엔진, 차체 등 FTA로 관세 인하된 품목 중심 현지 공급망 진입 |

식품(할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슬림 인구 증가 및 지속적인 한류 인기로 K-푸드에 대한 관심 지속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슬레·코카콜라 등 글로벌 FMCG 기업 다수 진출 및 로컬기업 역시 강세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할랄인증 기관의 교차인증 활용해 비용 절감 및 가격·용량 등 현지화 |

화장품(비건, 할랄)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슬림 인구의 증가 및 구매력 상승으로 할랄 화장품 시장 점진적 성장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로컬 Safi·Wardah 브랜드 강세,
왓슨스·가디언·쇼피가 주요 판매 채널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비건·할랄인증 통해 성분 안전성 확보,
SNS마케팅으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 |

첨부 2

수출 유망 품목(서비스)



AI 기반 반도체 검사 솔루션

선정사유 • 말련은 반도체 OSAT 비중이 크고, 검사 공정에서 인력 의존도가 여전히 상
 → AI 영상 분석·머신러닝 기반 자동 검사 수요 급증

경쟁동향 • 미국, 일본 기업 중심으로 제한적 제공
 • 로컬기업은 소프트웨어 검사 솔루션 부족

진출방안 • AI 불량 패턴 분석 소프트웨어 + 검사 장비 통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시장 공략

이러닝·에듀테크

선정사유 • MyDIGITAL 정책, 온라인 교육 수요 확대,
 STEM·AI 교육 강화 필요

경쟁동향 • 로컬 iNEDU, 구글·MS 교육 플랫폼 존재, 맞춤형 콘텐츠 부족

진출방안 • 한국형 AI 기반 맞춤형 학습 플랫폼 제공,
 현지 대학·사립학교와 공동 커리큘럼 운영

데이터센터 운영 솔루션

선정사유 • 조호르·클랑밸리 데이터센터 투자 급증('27년 3,600MW 목표),
 에너지 최적화 필요

경쟁동향 • Vertiv·Schneider 장비 공급,
 AI 기반 운영 소프트웨어는 부족

진출방안 • 한국 기업의 AI 전력·냉각 최적화 SaaS 제공

병원 EMR 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말련은 '30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이 15%에 달할 전망
→ 고혈압, 당뇨,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환자 기록 관리 중요성 확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erner(미국), Epic(미국), InterSystems(호주)가 일부 병원 공급, 가격·현지화 문제로 확산 제한• 중소형 병원·클리닉용 EMR 솔루션 부족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EMR 솔루션을 클라우드형 SaaS로 제공
→ 중소형 병원·클리닉도 저비용으로 사용 가능 |

사이버보안솔루션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 및 민간 분야 디지털 전환 가속화되며 사이버 위협 노출에 따른 사이버보안 중요성 대두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Cisco 등 글로벌 사이버보안업체 진출 활발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기업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레퍼런스 구축, 산업통합 패키지 형태로 제공 |

F&B프랜차이즈

- | | |
|-------------|-----------------------------------------------------------------------------------------------------------------------------------------|
| 선정사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류 인기가 지속되며 한식 보편화, 한국식 식사 및 커피·디저트에 대한 인기 증가 |
| 경쟁동향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글로벌 F&B 프랜차이즈의 동남아 테스트베드 시장으로 경쟁 치열, NakNak 등 현지인 운영 한국식 프랜차이즈는 저가 및 현지화 된 맛으로 경쟁 |
| 진출방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파트너와 합작투자 진출이 일반적이며 현지화 된 맛과 제품 구성 + 퀄리티 유지로 로컬기업과 차별화 필요 |

첨부 3

'26년도 KOTRA 주요사업(잠정)



'26년 말레이시아 지역 KOTRA 주요사업

구분	주요 사업명	일시/장소
사절단	아세안 조선해양 기자재 사절단	상반기/쿠알라룸푸르
사절단	한·말 의료기기 협력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상반기/ку알라룸푸르
유통망 입점	말레이시아 유통망 진입지원 사업(1무 1유)	상반기/온라인
마케팅 지원	K-소비재 온라인 역직구 판촉사업	상반기/온라인
세미나	말련·인니 할랄산업 협동 설명회	상반기/온라인
상담회	DSA 연계 사전 온라인 상담회	상반기/온라인
사절단	한·말 스마트팜 로드쇼	4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세미콘 전시회 연계 한·말 반도체 협력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	5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메탈텍(Meraltech) 통합 한국관	5월/ку알라룸푸르
사절단	아세안 소비재 사절단	6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아키덱스(ARCHIDEX) 통합 한국관	7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OGA 전시회 연계 수출상담회	9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할랄식품전시회(MIHAS)	9월/ку알라룸푸르
전시회	코스모뷰티(Cosmobeauté) 전시회	10월/ку알라룸푸르
사절단	아세안 K-소비재 사절단 및 유통망입점사업	11월/ку알라룸푸르
사절단	한·말 스마트시티 로드쇼	하반기/ку알라룸푸르

첨부 4

'26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UMNO(통일말레이국민조직) 지도부 선거	3월	-

주요 경제·통상 일정

무역협정	일시(잠정)	비고
EU-말레이시아 FTA	연중	'26~'27년 타결목표
EFTA-말레이시아 경제동반자 협정 발효	연중	'25.6.23. 서명 각국 비준 완료 후
2027 예산안 발표	3분기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Asia Water 2026 / Kuala Lumpur	4.7.~4.9.	수처리, 워터테크
Defence Services Asia(DSA 2026) / MITEC	4.20.~4.23.	국방, 보안
Semicon Southeast Asia	5.5.~5.7.	반도체, 전자
METALTECH 2026	5.20.~5.23	기계, 장비
Malaysia International Beauty Expo	6.13.~6.16.	화장품, 뷰티
ARCHIDEX 2026	7.29.~8.1.	건축, 인테리어
2026 Oil & Gas Asia(OGA) / KLCC	9.2.~9.4.	석유·가스, 에너지
Malaysia International Halal Showcase	9월	할랄
beautyexpo & Cosmobeauté Malaysia/KLCC	9.29.~10.1	화장품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신승옥	과장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60-3-2117-7114	sinspired1@kotra.or.kr
2	최혜민	과장	쿠알라룸푸르 무역관	60-3-2117-7110	hmchoi@kotra.or.kr

2026

말레이시아
진출전략



ISBN : 979-11-402-1539-3 (95320)